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C
뱅크오브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770호

Thursday, October 5, 2023 A

공화당 ‘극단정치’와 민주당 ‘진영정치’ 합작품

SPECIAL STORY

공화당 극우 8명+민주당 전원 찬성 매카시, 섰다운 막는데 기여했지만

“다음은 뭔가?(What's next?)”

지난 3일 의회 역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결의안 가결처리 직후 혼란에 빠진 공화당 회의실에서 의원들 사이에 터져나온 개탄의 목소리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가결 처리했다. 매카시가 속한 공화당(218명) 의원 210명의 반대에 불구하고 당내 강경파 의원 8명이 이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지난 3일 해임결의안 가결 직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의장 해임안 표결 자료: 미국 하원

	찬성	반대
공화당	8	210
민주당	208	0
결과	216	210

했다. 여기에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0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 1월 당내 강경파의 반대 속에 15번의 투표 끝에 어렵사리 하원 의장에 선출된 매카시는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23년 미 의회 역사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 해임안이 제출된 건 1910년(조셉 캐넌), 2015년(존 베이너)에도

있었지만 표결에 부쳐져 실제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초유의 사태는 의장 해임안을 낸 맷 게이츠 하원의원 등 공화당 내 ‘프리티엄 코커스’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강경파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섰다운’(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재정지출 대폭 삭감 및 이민 정책 예산 증액 등 자신들의 요구를 제

대로 반영하지 않고 민주당 정부에 협조했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해임안을 낸 게이츠를 비롯해 앤디 빅스, 밥 굿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질 거라는 건 예상됐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뜻밖의 상황이 전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 때 당론으로 ‘해임안 찬성’을 정했다고 한다. 매카시 의장이 임시예산안 통과로 정부 섰다운을 막는 데 기여하긴 했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하원 상임위에 지시하는 등 과정에서 민주당 측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부채한도 협상 당시 약속을 깨고 섰다운 위기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거론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내 비타협적 강성 진영의 ‘극단의 정치’와 공화당에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의 ‘대결의 정치’가 결합해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부른 셈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강태화·전수진 기자 >> 10면 ‘공화당’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둔화 우려에 국제유가 5% 급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4일 국제유가가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증가는 배럴당 84.22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5.01달러(5.6%) 하락했다.

이는 지난 8월 31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WTI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93.68달러(증가 기준)로 지난달 8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가 다음 날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 거래일 증가 대비 5.11달러(5.6%) 내린 배럴당 85.81달러로 마감했다.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기대가 커진 게 유가를 급격히 끌어내렸다.

카드 고객정보 무단 수집·판매 논란

PIRG, 결제 기록 판매 주장 마스터카드, 의혹 전면 부인

마스터카드가 크레딧카드 고객의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BS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옹호 비영리 단체인 공익연구그룹(PIRG)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마스터카드가 사용자들의 결제 기록을 보관하고 고객 동의 없이 제삼자 업체



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PIRG는 마스터카드가 자체 기록한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를 판매해 큰 이익을 거뒀으며, 이를 위해 전담 부서가

지 조직했다고 덧붙였다.

PIRG의 RJ 크로스 애널리스트는 “마스터카드에 데이터 판매와 관련해 투명하지 않다. 다수의 카드 사용자들은 업체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같이 정보가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신분 도용과 각종 스캠 등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훈식 기자 >> 10면 ‘카드 고객정보’로 이어집니다



워싱턴 의료 종사자들도 파업 동참 미국 전역에 걸쳐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7만5000여명 의료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간호사 등 수백명 의료 종사자들이 4일부터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새벽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지역에서 카이저 퍼머넌트 사무실 앞에서 의료 인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관계기사 6면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여기 풀리지 않음
보석 새금,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410-988-5523

센터빌
첸틀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통증치료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폐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반갑스무니다” 아베에 고개돌린 그날, 진실은

‘박근혜 회고록’ 두번째 이야기

야스쿠니 참배 등 갈등 잦았던 아베 2006년 커터칼 테러 위로서한도

“반갑스무니다.”

2014년 3월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분위기가 썰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린 것. 회심의 이벤트를 준비했다가 무안해진 아베 총리는 훗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내 한국어가 어색했나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 전 대통령은 왜 아베 총리의 한국어 인사에 반응이 없었을까. 당시 일각에 선 박 전 대통령이 기싸움 차원에서 일부러 아베 총리를 외면한 것이란 그럴

듯한 관측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억하는 그날의 진실은 뭘까.

5일 공개된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의 ‘박근혜 회고록’ 2회는 박 전 대통령이 회고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다룬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 중 최장수 재임 기간(8년9개월)을 기록하며 2020년 물러날 때까지 ‘1강’의 독주체제를 다진 지도자다. 그의 재임 기간 중 한·일 관계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박 전 대통령도 아베 총리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애를 먹었다.

이번 회고록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상대하면서 느꼈던 인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2006년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아베 당시 관방장관이 위로서한과 쇠고기를 보냈던 일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들도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중앙일보 회고록팀과 집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최순실 사태’의 전말과 특검 수사·재판을 비롯해 북한 핵실험,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당·청 갈등 등 재임 중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면서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느꼈던 소회를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다.

유성운 기자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에 합의내용 안알려”... 윤미향은 묵묵부답

(당시 정대협 대표)

‘박근혜 회고록’ 정계 반응

여당 “박 전 대통령, 고심 드러나” 야당 “문 정부, 폐기란 말은 안 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회고록에서 “공들여 만든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소식을 옥중에 서 들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밝히자 야권은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교라인 고위 인사도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합의는 잘못됐다’고 하던 상황”이라며 “어찌 됐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이 “합의가 사

실상 폐기됐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외교부에서 폐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TF’를 꾸렸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2018년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당시 환율 109억원)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에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대협 측은 할머니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윤 의원은 무응답이었다. 문 정부 관계자는 “TF는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내렸

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회고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까지도 모두 지워지거나 부정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했고,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국 10억 엔을 출연했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이 법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위문희·전민구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방류 오늘 시작

23일까지 총 7천800t

일본 도쿄전력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2차 해양방류를 개시한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하루 방류량은 460t가량으로 예상된다.

민영방송인 후쿠시마주오텔레비 등

현지 언론은 도쿄전력이 5일 오전 10시 30분 방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내보낸다.

ALPS로 정화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이기는 하지만 탄소-14 등의 핵종도 남는다.

도쿄전력은 ALPS로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리터(L)당 1천500베크렐(Bq) 미만으로 만들어 내보낸다.

도쿄전력이 전날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Bq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분 보관 탱크내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코발

트-60, 아이오딘-129 등 4종의 방사성 핵종도 미량 검출됐으나 모두 고시 농도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전날 외신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작업을 통해 희석설비의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塗裝·도료를 바름)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다만 “도장에 균열이 없고, 수조의 방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 788t을 처분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으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8천여이 보관돼 있다.

워싱턴 날씨 (°F)

6일(금)	77-61	9일(월)	64-46
7일(토)	64-47	10일(화)	67-45
8일(일)	62-45	11일(수)	69-48

10월 5일(목) 80~6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새 부엌, 새 가구, Under Contrac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0에이커, 멋진 플로리달!
---	---	--



1495 Satellite Blvd,
Suwanee, GA 30024
(470) 504-3688
info@ebensilvertown.com
ebensilvertown.com

에벤 실버타운

따뜻한 섬김, 평안한 일상,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곳.
에벤 실버타운은
노년의 축복입니다.

- 다양한 설계
- 운동 시설
- 게임룸
- 야외 운동 시설
- 공용 공간
- 영화관
- 채플
- 키즈룸
- 파티룸
- 노래방 시설
- 텃밭
- 도서관
- 요가룸
- 육상 정원

웰니스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틀란타 최대 규모의
한인 물리치료 클리닉
FIT IN MOTION 이 상주합니다

VA 총선 중앙당 개입 '사활'

민주당 200만달러 지원

민주당전국위원회(DNC)가 오는 11월 7일 버지니아 총선을 앞두고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선거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민주당전국위원회 산하 민주당법률캠페인위원회(DLCC)의 헤더 윌리엄스 임시 의장은 "민주당이 버지니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은 작년 연방 대법원의 낙태 규제 판결 이후 버지니아가 남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낙태 규제를 가하지 않는 유일한 주라는 사

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을 모두 승리할 경우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입신 15주 이상 낙태 금지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 측은 남부의 낙태 허용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가 무너질 경우 동북부와 중서부 등으로 낙태 규제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적으로 2024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DLCC는 지난 1월부터 이미 버지니아 내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각종 정치행동위원회(PAC) 등을 통해 자금 또한 간접 지원

해 오다가 최근에는 지난달 120만달러 현금 직접 지원에 이어 이번에는 200만달러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렸다.

공화당은 영킨 주지사의 PAC를 통해 올해 2분기에만 575만달러를 모금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채프먼 랙어웨이 레드포드 대학 교수는 "민주당이 상원 수성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서 하원 탈환이라는 2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100%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2021년 총선과 주지사 선거에 이어 3연속 승리를 거둬으로써 스윙스테이트를 다시 공화당 우세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자폐 한인 태권도 우승 "엄마, 내가 해냈어요"

지난달 열린 제10회 국제파라태권도 챔피언십(World Para Taekwondo Championships)에서 한인 자폐 청년 김지수(35·사진)씨가 품새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9월 20~24일 닷새간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 미 국가대표로 참가한 김지수씨는 품새 부문의 자폐 선수 경기(시니어II-A클래스)에서 노련한 실력의 크로아티아팀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국제파라태권도 챔피언십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로, 4년에 한번씩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60개국 이상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지수씨는 그간의 같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타국에서 온 다른 경쟁자 자폐증 선수들을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수씨의 어머니 김인숙씨는 "결승 경기에 올라온 크로아티아 선수가 워낙 실력도 좋고 체격도 좋아 지수도 긴장하며 경계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집중한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우승을 확인한 지수는 '엄마, 내가 해냈어'라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지적 장애 3급에 70이 안되는 IQ로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지수씨는 6살 때 태권도를 시작해 올해로 29년째 태권도를 연마하고 있다. 국민원 공인 4단의 유단자인 지수씨는 일반인들로 취득하기 어렵다는 국제사범 자격증과 심사위원 자격증을 지난해 취득하며 놀라움을 안겼다. 어머니 김씨는 "지수를 통해 자폐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이 희망을 얻는 거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수아 기자**

"한사람 목회가 중요한 이유"

회복과 부흥집회 및 목회 세미나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와 워싱턴신학교(총장 이익섭)가 공동 주관한 2023 회복과 부흥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페어팩스 워싱턴신학교 채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 강사로 나선 장경동 목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부자 이야기는 세 부자의 이름은 없고 19장에 나오는 회개한 부자 '삭개오'의 이름만 등장한다"면서 "모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삶을 살자"고 설교했다. **김윤미 기자**

이어 다음날 진행된 목회세미나에서 장 목사는 "예수님의 집회중 규모면에서 5명2어 집회가 가장 크지만 요한복음 3장16절의 말씀은 니고데모 한명을 놓고 전하신 메세지"라며 "규모가 큰 목회도 중요하지만 한사람 목회도 중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교회 회장 심대식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만사를 내려주시며 우리는 그 만사를 담을 바구니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만사를 내 것으로 담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볼티모어주립대서 총격

지난 3일 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모건주립대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AP통신, CNN 등 언론이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 볼티모어 베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4명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과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하고 대피소를 찾으라고 안내했다.

또 다른 현지 언론 WJZ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학생 기숙사 건물 주변을 경찰차 여러 대가 감싸고 있으며 건물 상층부의 창문이 깨진 모습이다.

볼티모어 북동쪽에 위치한 모건주립대는 미국 내 주요 전통 흑인대학으로, 작년 가을 기준 약 9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고 권위 전미도서재단 한인 2명 최우수작 후보

미국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전미도서재단이 발표한 최우수 도서 최종 후보에 한인 및 한국 작가가 쓴 작품이 포함돼 기대를 모은다.

전미도서재단은 지난 2일 픽션과 논픽션, 시, 번역문학, 청소년 문학 부문에서 최우수 도서를 뽑는 최종 후보 작품 총 25개를 발표했다.

이중 시 부문에 텍사스 출신의 한인 2세인 모니카 윤(사진 왼쪽)씨가 쓴 '프롬프롬(From From)'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재단은 윤씨의 작품에 대해 "미국의 인종차별과 반 아시아적 폭력



에 맞서고, 독자들에게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되짚어 준다"고 평가했다.

번역문학 부문에는 한국 정보라(오른쪽) 작가가 쓰고 안톤 허씨가 번역한 '저주돼끼(Cursed Bunny)'가 최종 후보 5개 중 하나로 뽑혔다. 한편 시상식은 내달 15일 뉴욕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연화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미용사 초빙합니다.

경력자 우대

전화주세요
410-988-5523

NETFLIX

한인 여성 CPO 임명

유니스 김 제품혁신팀장 승진 콘텐츠 전략·개발 과정 총괄

한인 여성이 넷플릭스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임명됐다. 넷플릭스는 3일 유니스 김(사진)을 CPO로 승진시켰다고 발표했다. 연례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는 김 CPO가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전략과 개발 과정 등을 총괄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호텔비·술값 향응’ 존이 윤리위 제소

〈LA 시의원〉

베이거스 여행사 각종 접대 시윤리규정 10건 위반 혐의 이 “완전히 잘못된 것” 반박

LA 시의회 내 유일한 한인인 존이(12지구·사진)시의회가 LA시윤리위원회(Ethics Commission·이하 윤리위)에 윤리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2일 윤리위 발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미치 잉글랜드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할 당시 라스베이거스 여행 등을 통해 받은 각종 향응과 접대의 내용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등 총 10개의 시정부 윤리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리위는 관내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라 규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행을 통해 수차례의 선물과 향응을 받았으며 직분상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내용을 윤리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윤리위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7년 LA 한인타운의 모처에서 사업가, 로비스트, 개

말업자와 포커 게임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가 모씨가 총 800달러에 달하는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윤리위는 명시했다.

또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숙박, 교통, 나이트클럽 술값 등 총 5600달러 상당의 향응을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윤리위는 보고 있다. 잉글랜드 전 시의원은 2020년 당시 연방 법원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의원 사무실은 2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제소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개월 동안 윤리위는 내가 참석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저녁 식사자리를 조사하는 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썼으며, 2017년 6월 라스베이거스 여행

에서 가진 식사비용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는 “당시 연방수사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내용을 밝혔으며 여행 경비는 은행 계좌를 공개해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의원은 “윤리위는 진실과 관계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리위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와 증언을 관련 청문회에 제시할 예정이며, 부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벌금(혐의당 최대 5000달러)을 부과한다. 만약 이를 공직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방 법원에서 형사 재판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

서울메디칼그룹 인수 합병 “한인기업 중 역대급 규모”

서울메디칼그룹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달이 한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메디칼그룹(SMG, 회장 차민영)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 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에 지분 3분의 2를 넘기는 인수합병 계약 완료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한크리 사장은 “현재 양측이 1~2가지 조건을 최종 확인 중”이라며 “오는 5일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사장은 인수 금액에 관해서는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으로 지



금 공개할 수 없다”며 “인수합병 액수가 8억 달러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큰 일’일 것이다. (한인 의료계) 파이가 더 커지는 만큼 모두가 축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의 연 매출은 4억~5억 달러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분 3분의 2 매각에 따른 금액은 최소 5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손에 꼽힐 대규모 달이 될 것이라 설명이다. 한인 기업 중 역대 최고 기업 매각은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팔린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업체 ‘자일랜(회장 스티브 김)’이다. 매각 당시 자일랜은 세계 60여 지사망 구축으로 연 매출이 3억5000만 달러였다.

2016년에는 고 흥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이 소유한 특수페인트 생산업체 ‘듀라코드’가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엑셀타 코팅시스템에 10억 달러 규모에 매각됐다.

2014년에는 1.5세 여성 기업인 토니 고씨가 색조 화장품 회사 ‘니스화장품’을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에 5억 달러에 매각했다.

한인 1세대 이용기·이음목 회장이 공동 경영해온 미국 최대 에어컨 부품업체 ‘트루어어(TRUaire)’는 2020년 공업제품 전문 상장기업 CSWI에 3억

6000만 달러로 매각됐다. 당시 트루어어 연 매출은 1억 달러였다.

이밖에 2017년 ‘X’의 전신인 스냅이 한인 2세 데이비드 심이 운영하던 모바일 광고분석 업체 ‘플레이스드(Placed)’를 2억 달러에 인수했고, 2015년에는 윌리엄 박 회장의 모기지 업체 ‘PMAC’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계열사에 약 2억 달러에 매각됐다.

한인 의료회사들도 비싼 값에 거래됐다. 2013년에는 김상훈 회장의 프리미엄 침바지 브랜드 ‘허드슨 진’이 9800만 달러에 매각됐으며, 2020년 ‘포에버21’은 연방 파산법원의 명령으로 8100만 달러에 쇼핑몰 업체에 팔렸다.

김형재 기자

한남체인 노조 결성 내주 결정

정부기관 “투표서 위협없어” 사측 항소 없으면 9일 개표

한남체인 노사가 노동조합 결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방정부 독립기관 ‘전미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NLRB는 지난 8월 한남체인 LA점 앞에서 실시된 직원들의 노조가입 결정투표 진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협

박 등이 있었다며 투표 무효를 요구한 한남체인의 이의 제기를 증거 불충분을 들어 2일 기각했다.

NLRB는 판결문에 “사측이 주장한 투표 강요 행위나 직원들의 표를 위해 뇌물을 주거나 위협을 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NLRB의 규정에 따라 사측이 오는 17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지난 8월 3일 이후로 중단됐던 노조결성 찬반투

표 개표 절차는 빠르면 오는 9일 진행할 수 있다.

개표 결과 반수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한남체인 LA점에는 정식 노조가 결성된다.

한남체인 LA점의 노조 결성을 도왔던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 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는 지난 8월 진행된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섰다고 주장

한 만큼 노조 결성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남체인 관계자는 3일 본지에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알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은 지난해 3월 마켓 측에 노조 결성 청원서를 제출한 후 1년 5개월여 만인 지난 8월 3일 노조가입을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당시 투표에는 65명의 직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사측이 신고해 투표소를 감시·관리했던

NLRB LA지부 소속 담당자들은 개표를 보류하고 투표지를 압수해갔으며 이후 노사 양측은 NLRB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KIWA가 지원한 노조 CRRWU에는 겐와코리아나비비큐(Genwa Korean BBQ) 직원들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한남체인 LA점이 가입하게 되면 CRRWU의 2번째 가입 그룹이 된다.

한편 한인타운 관계자들은 이번 한남체인 노조가 결성되면 다른 한인 마켓들로 노조 결성 움직임이 번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장영화 기자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Bankruptcy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래지던트 대상 수상

“빌페이지 토요타에 다~ 있습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빌페이지토요타닷컴

www.BillpageToyota.com

신차부터 중고차, 다양한 모델의 성능에 연비까지~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최고의 한인 전문팀을 만나보세요!”

2023 시에나 하이브리드 가족용 캠핑카

2024 그랜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압도적인 사이즈와 성능

2023 벤자 하이브리드 탁월한 연비

2023 램4 하이브리드 미국 탑세일즈 SUV

2023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다목적 라이프 스타일 차량

아직도 새차 물량이 부족합니다 빌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20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2018 Toyota Corolla LE Sale Price \$18,795 Mileage: 66,172 Stock#: P7175	 2017 Toyota Camry SE Sale Price \$18,995 Mileage: 71,684 Stock#: P7046	 2018 Toyota RAV4 XLE AWD Sale Price \$22,349 Mileage: 81,272 Stock#: P7124	 2021 Toyota Corolla Hybrid LE Sale Price \$22,598 Mileage: 69,099 Stock#: P7160	 2018 Toyota C-HR XLE Sale Price \$22,997 Mileage: 72,926 Stock#: P7136	 2016 Lexus RX 350 Advance Pkg Sale Price \$31,300 Mileage: 41,052 Stock#: P7088	 2018 Acura TLX Premium Pkg Sale Price \$26,000 Mileage: 36,158 Stock#: P6711	 2021 BMW 530i xDrive Sale Price \$33,795 Mileage: 47,846 Stock#: P7081	 2017 Ford Mustang GT Premium Sale Price \$34,356 Mileage: 24,628 Stock#: P7009	 2017 Honda HR-V LX Sale Price \$17,248 Mileage: 76,474 Stock#: P7134
---	---	---	--	---	--	---	---	---	---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러에 문의 주세요)

택스 아이디어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페이먼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금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줄리 박
443.710.1207

매니징팀

제네랄 매니저 **자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www.billpagetoyota.com

*Prices include all applicable current manufacturer rebates. Additional factory rebates such as recent college graduate or military may be available. All vehicles are subject to prior sale. All prices are special interest prices only and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offer, public or private. All financing is subject to approved credit. All new vehicle prices exclude freight, tax, tags and processing fee of \$799. We make every effort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but please verify options and price before purchasing. Bill Page Toyota-Scion.com can not be held liable for data that is listed incorrectly. *Smooth for first payment through Ally Bank is subject approved credit. See dealer for details.

한인 사업가, 시카고 최초 카지노 오픈

17억불 규모 '발리스' 김수형 회장 '카지노 금지' 도시서 개관해 의미 리조트 완공 전 임시 카지노 개설

한인 사업가가 시카고 지역에서 최초의 카지노를 열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들은 김수형 회장(48·영어명 수 김)이 이끄는 대형 카지노 리조트 사업체 '발리스(Bally's)'가 시카고 지역 와바쉬 애비뉴와 오하이오 스트리트 인근 메디나 템플을 임시 카지노로 개조, 개관식을 가졌다고 3일 보도했다.

임시 카지노는 지난 9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750여대의 슬롯머신, 56개의 테이블 게임 등이 설치되었다.

이는 시카고 지역의 첫 번째 카지노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사업 운영권을 따냈다.

발리스는 총 17억4000만 달러를 투



김수형 '발리스' 회장(왼쪽 세 번째)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3일 임시 카지노 개관식에서 리본 커팅을 하고 있다. [발리스 페이스북]

입해 객실 500개, 라이브 공연장, 슬롯머신 3400대, 테이블 게임 173개 등을 갖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대형 리조트는 리버 노스 지역의 트리뷴 인쇄 공장 부지에 지어진다. 발

리스의 리조트 개장 목표는 2026년이다. 발리스측은 리조트가 완공돼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간 8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형 회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카지노와 달리 다른 고

객층을 찾고 있다"며 "게임을 즐기는 젊은층이 이 도시에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시는 카지노가 들어오면 연간 5000만 달러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이날 개관식에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 제시 화이트 전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등을 비롯한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존슨 시장은 "카지노를 통해 얻게 될 세수는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라며 "리조트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넘어 시카고를 더욱 강력하고 활기찬 도시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발리스는 현재 전국 10개 주에서 14개 카지노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뉴욕 맨해튼의 스타이브슨 고등

학교를 졸업하고 프린스턴대학에서 공

공정책을 전공한 한인 1.5세대. 헤지펀드 투자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는 설립 허가 전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시달려왔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1년부터 세수 증대를 위해 시카고의 카지노

설립을 처음으로 허용하고 도박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었다.

결국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김 회장은 공개

입찰을 거쳐 카지노 사업권을 손에 쥐었다.

한편, 김수형 회장은 지난 2007년 헤지펀드 운용사 '스탠더드 제너럴'을 설립했다. 2020년에는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의 '발리스 호텔 앤드 카지노'를 인수하고 같은 해 10월 '발리스' 브랜드까지 사들이며 업계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장영기자

미셸 박 스틸에 베트남계 도전장

데릭 트랜 연방 45지구 출마 2세로 변호사 겸 약국 경영자

한인 베테랑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공화·45지구)의 자리에 베트남계 2세 도전자가 나타났다.

미 육군 출신으로 소비자법 변호사인 데릭 트랜(42·사진)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부를 관할하는 45지구 연방 하원 의석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현역인 스틸 의원과 싸우겠다고 2일 밝혔다.

트랜은 이날 공개한 출마 발표문에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희생한 베트남 난민이었다"며 "나에게 많은 것을 준 이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고 45지역구의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가 보장되도록 싸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동네 약국 주인



으로서 나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가격 담합이 우리 지역사회와 시니어들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며 "스틸 의원은 지역 유권자가 아닌 후원자들의 특별한 이익만을 위해 시간을 낸다. 나는 사람들을 정치보다 앞세우고 민주주의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를 빼앗길 두려움 없이 성공할 기회를 갖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랜은 아내 하임에 아내 미셸과 함께 '트루케어 파머시'라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트랜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로 있다.

트랜은 스틸 의원에 도전장을 낸 5번째 민주당 후보다. 올초 김 버니스 응우옌, 사이엔 헌트, 아디티아 파이, 지미 판이 후보로 등록했다. 장영화 기자

"K푸드 위상 높이기 위해 힘쓸 것"

한식세계화협회 임종택(사진) 회장이 2024~2025년 세계한식총연합회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달 6~8일 한국 한식진흥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한 2023년도 해외 한식당 협의회 초청 워크숍이 열렸다. 전 세계 15국 26개 도시에서 한식을 알리고 세계화 사업을 진행하는 해외 한식당 협의회 임원 7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 향후 2년 동안 15개국 한식당 협의회 회장단의 대표로 임종택 회장이 낙점됐다. 2013년 총연합회 초대 회장이었던 임 회장은 10년 만에 다시 회장직을 맡게 됐다.

총연합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협의회 도시를 순회하며 한식세계화 국제포럼 행사를 한다. 올해는 11월 11~13일 일본 도쿄에서 한식문화글로벌 포럼이 열린다. 내년에는 7~8월 LA에서 열린 예정이다.

올해 세계한식총연합회 정책 추진



임종택 세계한식총연합회 총회장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기자

방향은 K 컬처 연계 사업, 한식 글로벌 브랜딩 구축, 고품격 한식당, K 푸드 산업 생태계 확장 등이다.

임 회장이 수장으로 이끄는 내년에는 한국 식재료 전 세계 공급, 세계 각 지역 한식 행사 지원, 세계 3대 음식으로 한식 위상 높이기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식의 깊은 맛이 난다"며 "총연합회에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본부를

구성하고 광주광역시와 협력해 한국산 식재료를 저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LA 한식당 협의회인 한식 세계화협회가 농림축산부와 한식진흥원 주최로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오는 12~31일 광주 김치, 완도 전복, 다시마, 궁채, 오이지 등을 수입해 구매 의사를 밝힌 30개 식당에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12~15일에 열리는 제50회 한인 축제에서 농림축산부와 한식진흥원 주최 지역사회 공헌행사인 광주광역시 김치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9일 세계 김치의 날을 기념해 전남이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김치의 날 행사를 오렌지카운티 소스 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한국산 식재료 공동구매가 외국식당 구매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포괄적 시스템 도입을 기대한다"며 "K팝처럼 K 푸드를 세계 최정상에 올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은영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이혼·파산

www.songlaw.org

송영수 변호사

법정 공인 중재관 (Mediator)

Young S. Song
Licensed in MD / VA / DC

고객들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켜 드립니다.

Virginia Office
703-354-1033
10301 Democracy Lane, Ste. 105
Fairfax, VA 22030

Maryland Office (Main)
410-696-2256
3201 Rogers Avenue, Suite 301
Ellicott City, MD 21043
E-mail: YSSonglaw@cs.com

온라인 Zoom 상담 가능!

법정공인중재관 (Mediator)

첫 상담 무료 (30분)

- 이혼 상담 제외: MD Office에 한함
- 저녁 및 주말 예약 가능

공화, 하원의장 경선 점화... '바이든탄핵조사' 법사위원장 출마

공화당 내 소수 강경파의 반란으로 자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해임된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차기 하원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 하원의장 선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전했다.

특히 이번 반란을 주도한 강경파와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창립 멤버였던 조던 위윈장은 연초 하원 의장 선거 때도 매카시 전 의장에 반대하는 강경파들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그는 매카시 전 의장을 지지하고 매카시 전 의장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헨리 바이든 의혹 등을 과헤치는데 집중했으며, 매카시 전 의장이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서 매카시 전 의장과 협력적으로 일했으나 강경파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에 적합하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스컬리스 원내대표 역시 하원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전 의장에 이어 하원 공화당 서열 2위인 그는 당내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는 2017년 야구 연습장에서 총격 테러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고 있어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상태다.

이밖에 톰 에머 원내 수석부대표, 보수 모임인 '공화당 스타디 워워' 의장인 케빈 헤른 의원(오클라호마) 등도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미국 하원 의장 선거는 11월 진행될 예정이며 공화당은 하루 전인 10일에 후보들의 정경 발표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장은 과반 득표로 결정되며 이 때문에 다수당이 하원의장을 배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221명)과 민주당(212명)간 격차가 크지 않고 20명 정도 되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이번에도 이탈할 경우 연초보다 의장 선출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매카시 전 의장은 15차례 투표 끝에 하원의장에 당선됐으며 이 과정에 강경파에 다양한 양보를 했다. 이번에 매카시 전 의장이 해임되게 된 계기가 된 해임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낮춘 것도 그중 하나다.

정당별로 갈린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공화 50%·민주 77%

미국인 다수가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에 여전히 찬성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화당 지지층의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3%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사물자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지지 응답은 2022년 7월 조사에서 72%, 2022년 11월 65%를 기록해 하락세다. 특히 공화당에서 피로도가 감지됐다. 공화당 응답자의 50%가 추가 지원에 찬성했는데 이는 2022년 7월 조사보다 18%포인트 낮고, 개전 초기보다

30%포인트나 줄었다. 추가 지원에 찬성한 민주당 응답자는 77%로 2022년 7월의 7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미국인의 53%는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한 무기, 장비와 훈련이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고,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의 69%가 지금까지의 지원이 값어치를 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에서는 38%에 불과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에 대한 지지 여론은 굳건했다. 응답자의 77%가 미국이 NATO에 대한 기여를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이 수준을 유지해

고 WP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은 응답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가 나타났다.

추가 지원 찬성 비율은 대학 졸업자의 75%, 대학 교육을 일부만 받은 응답자의 60%, 고등학교 졸업 또는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53%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인 지난달 7~18일 미국 성인 3천2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개전 직후인 2022년 3월 조사의 81%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 미국인이 그를 지지했다.

작가·배우·자동차 이어 의료까지 보건의료노조 사상 최대 파업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자동차에 이어 의료부문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4일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친 주요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 퍼머넌트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이 사흘간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

수만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 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WSJ은 전했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응급실 등 일부는 의사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이저 퍼머넌트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등지에 수백개의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시작한 이번 파업은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기술진 등 병원 측의 임금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며 시작됐다.

카이저 퍼머넌트에는 현재 6만8천명의 간호사와 2만3천명의 기술직과 사무직원 등이 근무 중이다. 의사는 2만4천명이 고용돼 있다.

이번 파업에는 7만5천명 이상의 의료인들이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 측은 직원 총원 및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전 분야에 걸쳐 임금 인상 및 노동 조건 개선 등을 놓고 크고 작은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QLED TV에도 쓰인 기술 노벨화학상에 양자점 연구 3인

삼성전자의 QLED TV를 낳은 기술을 연구·개발한 과학자들이 2023년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일 양자점(Quantum dot) 발견·개발에 기여한 문지 바렌디(62)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루이스 브루스(80) 컬럼비아대 교수, IT기업 나노크리스탈 테크놀로지 알렉세이 예키모프(78) 박사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수상자는 나노기술에 색을 더한 과학자들"이라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총 1000만 크로네(약 13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린다.

양자점은 크기가 수 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크기인 반도체 결정을 말한다. 양자점의 크기를 나노기술로 조절하면 가전제품과 전도대 사이의 밴드 갭이 달라지고, 이 사이를 오가는 전자의 움직임도 제어할 수 있다. 빛을 흡수해 들뜬 전자가 빛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렌디 교수의 한국인 제자인 김성지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는 "양자점

은 입자 크기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색을 만들어 낼 수 있어 현재 상용화된 양자점 텔레비전의 소재로 응용되기도 한다"며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도 높아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태양전지·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자점은 1980년대 초 러시아 과학자 예키모프와 미국 화학자 브루스가 처음 발견했다. 예키모프 박사는 러시아 바빌로프 국립과학연구소, 브루스 박사는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후 브루스 박사 제자인 바렌디 교수가 MIT에서 혁신적인 양자점 합성법을 개발해 상용화에 이르는 기초를 닦았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 발표는 명단이 공식 발표되기 3시간 전에 유출되는 해프닝 속에 진행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수상자 명단 사전 유출 직후 "이는 실수이며 수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지 바렌디



루이스 브루스



알렉세이 예키모프

블링컨의 현란한 기타·노래 솜씨... 910만뷰 돌파

토니 블링컨(61) 국무장관이 노래 부르며 현란하게 기타를 튕기는 영상이 X(옛 트위터)에서 조회수 910만 건을 넘겼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7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연회장인 벤저민 프랭클린룸에서 '글로벌 음악 외교 이니셔티브' 행사를 주최했다. 음악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허비 행콕 등 세계적 뮤지션이 대거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이 갑자기 기타를 꺼내 블루스계의 전설 머디 워터스의 노래 '후치 쿠키 맨(Hoochie Coochie Man)'을 열창하자 참석자들이 환호성



지난달 27일 국무부 주최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SNS 캡처]

을 질렀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게재한 블링컨 장관은 "음악과 외교를 결합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는 글을 남겼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리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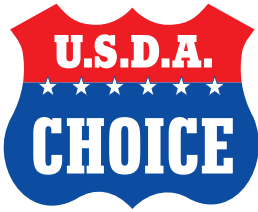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5TH - OCT. 12TH, 2023

Tender & Flavorful Marinated Short Ribs



양념 LA갈비



\$12.99 LB

OCT. 19TH - NOV. 9TH, 2023

KGC i-Kicker Herbal Supplement



아이키커 사파리 팩
3.38 FL OZ X 24 POUCHES/PKG



~~REG. \$35.99~~
\$19.99



apple
12 POUCHES

grape
12 POUCHES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중국의 '우호상징' 판다, 내년말 미국서 다 사라질 듯

내년 말 '미·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미국 내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판다의 소유권을 가진 중국이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빌려줬던 판다를 속속 되찾아가면서 '징벌적(punitive) 판다 외교'라는 말까지 나왔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자이언트 판다 7마리가 살고 있다. 이 중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 있는 3마리는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오는 12월 초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판다들의 귀국을 앞두고 최근 미국에서는 9일간 환송행사가 열려 아쉬운 이별을 고했다. 특히 3마리 중에서 가장 어린 수컷 샤오치지는 전 세계 팬들이 선정한 인기 1위의 판다다.

AP통신은 "추가 임대가 이뤄질 징후는 없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에 있는 4마리도 내년 말 임대 계약이 끝나는데 마찬가지로 연장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



내년 말이 되면 미·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가 미국 내에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계 판다 팬들이 뽑은 인기 1위 '샤오치지'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동물원에서 대나무를 먹고 있다. [AP=연합뉴스]

고 동물원은 2019년,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은 올해 초 각각 판다를 중국에 반환했다.

세계의 모든 판다는 중국 소유다. 중

국은 외국에 통상 10년 단위로 판다를 임대한다. 1983년 워싱턴 조약 발효로 판다 등 희귀동물을 다른 나라에 팔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자 돈을 받고 장기

간 빌려주는 형태가 됐다. 연간 임대료는 한 쌍당 100만(약 14억원)~200만 달러(약 27억원)다. 현재 19개국에 65마리의 판다가 임대 중이다.

중국은 마오쩌둥 시절 우호국인 소련과 북한에 판다를 기증했다. 영국 등 서방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도 판다를 이용했다. 특히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 미국에 암수 판다 한 쌍을 선물하면서 판다는 미·중 우호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양국 관계가 긴장되면서 중국의 판다 임대 정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데니스 와일더 조지타운대 선임연구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자 중국이 신호를 준 것일 수 있다"면서 본국으로 판다를 귀환시키는 움직임을 '징벌적 판다 외교'로 규정했다.

미·중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미국에 20년간 대여했다가 올해 숨진 수컷 판다 러러였다. 멤피스 동물원에 살던 러러는 지난 2월 중국 송환을 앞

두고 숨졌는데, 이를 두고 중국 내 여론이 악화했다. '정찰 풍선'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양국은 결국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공동 조사까지 벌였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판명됐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미국 동물원에서 러러를 학대해 숨졌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또 미국에 있던 암컷 판다 야야는 임대 기간 만료로 최근 중국으로 돌아왔다.

한편 한국 에버랜드에 사는 푸바오도 만 4세가 되는 내년에 번식을 위해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암컷 판다 아이바오와 수컷 판다 러바오를 한국에 보냈다. 이들 사이에서 2020년 7월 태어난 푸바오는 사육사와 보여주는 좋은 '케미'로 사랑받고 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는 짝을 이루지 못해 불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2031년 3월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서유진 기자

이란서 히잡 안 쓴 16세 소녀 혼수상태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16세 소녀가 도덕경찰에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단체와 이란 독립언론들은 "지난해 도덕경찰에 끌려가 구금 중 사망한 마사 아미니(22)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도 테헤란 남동부의 한 지하철역에서 쿠르드계 소녀 아미타 가라완드가 친구들과 함께 열차를 탑승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르드족 인권단체 행가드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가라완드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열차에 탔다는 이유로 제지됐고, 여성 경찰이 그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는 성명을 냈다. 단체는 "가라완드는 혼수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삼엄한 보안으로 가족조차 면회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당국은 국영매체 IRNA통신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어떠한 언어적, 육체적 갈등도 없었다"며 "가라완드는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매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가라완드가 친구들과 열차를 탑승



지난 1일 테헤란에서 사람들이 의식을 잃은 아미타 가라완드(16)를 플랫폼으로 데리고 나오는 CCTV 모습. [이란 IRNA통신 캡처]

하고, 곧이어 내부에서 쓰러진 가라완드를 사람들이 플랫폼으로 부축해 나오는 장면만 담겼다. 가디언은 "이 영상은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을뿐더러 편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지질환으로 인한 의식불명"이라는 해명은 1년 전 아미니 사건 때와 판박이다. 지난해 9월 여대생 아미니가 구금 중 사망하자, 정부는 "신경질환이 발병한 탓"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아미니 사망 사건은 대대적인 히잡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국제 엠네스티 등은 반정부 시위로 지난해 말까지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이유정 기자

'압도적 대세' 트럼프, 공화 경선토론 중단요구... "본선 집중해야"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다음달 8일 세번째 공화당 대선 경선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압도적 대세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향후 토론 일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후보로 대우하고 대선 본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고문인 크리스 라시비타는 전날 RNC에 "추가적인 경선토론을 즉각 종료해 조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쫓아내는데 쓸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부패한 바이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라시비타 고문은 전날 밤 수지 와일스 캠프 선임고문과 별도로 낸 성명에서도 즉각적인 토론 종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RNC의 인력과 돈을 민주당이 2024년 선거를 도둑질하는 것을 막는 데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만약 RNC가 토론을 계속한다면 RNC는 안전한 선거 보장보다 바이든을 돕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캠프의 이런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실상 공화당 후보로 보



고 당 차원의 대선 캠페인 초점을 후보 경선이 아닌 본선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과 9월에 진행된 1·2차 토론에 불참했으나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지지를 계속 기록하면서 사실상 압도적 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항마로 기대를 모았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2차 토론에서도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더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다. 사립가 비벡 라마스 와미니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이 토론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지지율 자체는 낮아 전국적인 차원의 경선 판도에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다.

첫 번째 경선 토론에 비해 두 번째 토론은 시청률이 주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경선 토론에 대한 관

심도 줄고 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다만 RNC는 내년 초 각 주를 돌아가면서 실제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 후보들도 트럼프 캠프의 토론 중단 요청이 토론의 필요성을 반증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샌티스 캠프는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쇠퇴를 중단시키고 다시 부활시키려는 구체적 계획과 비전에 대해 디샌티스와 토론하고 자신의 재임시 기록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트럼프는 방어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反)트럼프인 크리스 크리스티 대선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무 말이나 행동을 하며, 토론을 피하고 취소하면서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검쟁이이자 위선자"라고 비판했다.

RNC가 주최하는 3차 토론은 다음달 8일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토론 참여 기준은 전국 여론조사 2곳에서 4% 이상 지지 확보 등으로 2차 토론 때보다 높아졌다. 2차 토론에 참여한 7명 중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3차에는 자격 조건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우리 부부의 효소는
우메켄 효소환입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발효과학의 종결자 **우메켄 효소환**(정)
내용량: 370g(약 970정)/약 4개월분

역시! 우메켄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몸 속의 효소가 줄어들며, 자연히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부족해지는 몸 속의 효소를 **우메켄 효소환**으로 채우십시오. 효소환 한 알 한 알에 무려 108가지의 순수한 약초, 야채, 과일,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전통 제법으로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쳐 더욱 강력한 효소 파워가 살아 있습니다.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특별 행사



당뇨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7가지 성분을 추가한 우메켄 비덴스피로사**

- 당뇨병 약을 오래 드시고 식이요법 중인 당뇨병자
- 당뇨병 가족력이 있거나 경계선상의 전 당뇨병 상태인 분
- 과식, 과체중, 운동 부족으로 혈당이 높은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는 분

비덴스피로사 구매시 20% OFF ~10/15까지

• 내용량: 82.8g(약360정)
• 약 2개월분



8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재첩엑기스 EX**

- 간장병으로 고생하고 지방간이 걱정이신 분
- 과도한 음주로 간 보호가 필요한 분
- 심한 어지럼증이나 빈혈이 걱정인 분
- 복용약이 많고, 간이 지쳐 만성피로 호소하는 분

• 내용량: 60g(60포) • 약 2개월분

재첩엑기스 EX 구매시 20% OFF ~10/15까지



마약한 아들 실형에 감사 국가가 치료할 시간 됐다

정계 떠난 '사업가' 남경필의 소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함께 온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인생이 그랬다. 33세에 “엄검결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5선을 지냈다. 2014년엔 경기지사가 되며 승승장구했다. 당선 직후 이후의 시련이 닥쳤다. 2017년엔 대선 도전에 나설만큼 정치적 입지가 커졌지만, 장남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며 곤욕을 치렀다. 이듬해 경기지사 재선에 실패했다. 정치 인생 첫 패배였다. 그해 새 가정을 꾸렸다.

정치를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55세(2019년)에 홀연히 정계를 떠났다. 엇갈린 인생 궤적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인생사 무한히 반복되는 새옹지마”였다. 특히 장남 마약 사건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남 전 지사는 부모의 보호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을 취했다. 아들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 형이 선고됐다. 그 직후 남 전 지사는 “수년간 말 못 했던 속사정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지난달 18일 직접 인터뷰에 응했다.

장남 1심 판결 소회는. “기자들이 묻길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얘기했다. 판결에 감사했다. 아들이 두 차례 자수하고, 가족이 두 번 자진 신고했다는 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VOICE: 세상을 말한다

30대 초반에 의원 배지를 달고, 50대 중반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내리 5선 의원과 경기지사까지 거친 인물. 정치 인생 정점에서 이혼을 했고, 대선주자로 나설 때 장남의 마약 사건이 터졌으며, 첫 공직 선거 패배 뒤 재혼했습니다. 화려했던 정치 이력, 굴곡진 개인사. 남경필이 자신의 인생을 말합니다. 장남의 마약, 이를 가족이 신고까지 하게 된 사연. 말 못했던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

‘국가가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다.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하고 법원이 그걸 인용해 줬다. 검찰이 항소해 아쉽긴 하지만, 실형을 살게 됐고 충분한 치료 시간이 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항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 전 지사는 “(2017년 장남 첫 투약

이후) 수년간 감추며 안 해본 게 없다”고 했다. “병원도 가고, 권위자도 만나 보고, 속세와 단절된 산속 기도원도 가 봤지만, 치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 1월 장남은 두 차례 자수했지만 구속은 면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를 있어야만 퇴원이 가능한 병원에 자진 입원했다.

왜 가족이 자진 신고했나.

“(장남이) 한두 달 병원에서 잘 지냈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차남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이 퇴원했다’고. 그래서 ‘아빠가 동의 안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병동 안에서 군인들이 법정 전염병인 수두에 걸렸다. 장남도 감염됐다. 무조건 퇴원해야 했다. 집엔 아무도 없으니 불안해서 차남한테 ‘형한테 가보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형 목소리가 이상해서 간다’는 거다. 가보니 (장남이) 약을 하고 있었다. 그때 망설임 없이 차남이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급히 귀국했다. 이후 장남은 “병원에 가는 건 더는 의미 없다”면서 재차 마약에 손을 댔다. 다시 자수를 권유했지만, 장남은 “자수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다”며 “이번엔 아빠가 신고해 달라”고 했다. 결국 남 전 지사는 아들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장남은 지난 4월 구속됐다.

신고는 죄책감·책임감 때문이었다. “다 포함했다. 신앙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아들 덕분에 그 (마약) 세계를 많이 봤다. 약에 취한 그 순간은 흔히 ‘마귀’가 (아들)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그 모습은 내 아들이 아니었다. 마약 중독은 의학 문제지만, 영(靈)적인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종교계도 마약 퇴치 운동에 함께 나서줬으면 한다. 예를 들면 ‘다르크(DARC·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 공동체에선 대부분 종교로 극복했다고 한다. 나도 본격적으로 마약 퇴치 운동에 힘을 보탤 생각이다. 재정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아들은 아버지 걱정 안 하던가. “장남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그거다. 아들이 ‘아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선거 떨어지고 힘들어졌죠?’라고 묻는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잘못된 거 맞아. 걸맞은 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아빠가 경기지사라는 이유로 네가 받는 사회적 비난은 네가 보통 사람일 때보다 한 100배, 1000배 많을 거야. 네가 잘못된 건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비난) 때문에 아빠는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해라.”

남 전 지사는 “장남과 마약 퇴치 운동을 함께 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편다”고 했다. 정계 은퇴 선언 후 스타트업(빅케어)에 도전할 때도 ‘가슴이 편다’는 말을 자주 했다. 물론 ‘마약 퇴치’가 부자간의 낭만적 구호로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그는 “마약정 신설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쟁의 이유도 없고, 잡야 가둔다고 해결되지 않을 마약 문제는 지금 정도의 인식·제도·국가기관 상황으론 막기 어렵다”고 했다.

김태호 기자, 이경은·조은재 PD

▶1면 ‘공화당’에서 이어집니다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국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매카시는 이날 취재진에게 “의장직을 떠난다.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2인자인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차기 의장직과 관련해 연락을 시작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게이츠 의원은 차기 의장에 스컬리스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화당 하원 서열 3위인 톰 에머 원내총무,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도 거론된다. 차기 의장 선출 전까지 임시의장은 매카시 측근인 패트릭 맥헨리 금융위원장에게 됐다.

차기 의장이 뽑힐 때까지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NDAA)안 등 주요 의사일정 처리가 당분간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하원의장 해임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신뢰가 깨져 향후 각종 법안이나 고위 공직자 임명안

의 여야 합의 처리 등 협치 구현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의회는 극심한 대치로 본예산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집행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1961년 NDAA 제도를 도입한 뒤 매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 정치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리덤 코커스’가 ‘비타협적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62년 만에 국방예산 관련 합의 관행마저 깨지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말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이날 백악관은 커린 잔피에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직면한 시급한 도전 과제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속히 의장을 선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독일, 영국, 프

랑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동맹 정상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외한 임시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지속적 공조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통화에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겨울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원의장 해임을 주도한 게이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0년 하원의원(플로리다주)으로 당선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2년생인 그는 같은 당 소속 대선배 매카시를 하원의장직에서 끌어내리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조부 제리 게이츠와 부친 돈 게이츠 모두 워싱턴에선 큰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지역구에선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린 정치가 집안 출신이다.

워싱턴=김형주 특파원, 강태하·전수진 기자

▶1면 ‘카드 고객정보’에서 이어집니다

PIRG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스터카드의 사용자 정보를 익명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제삼자 업체가 개인과 정보를 특정 고객과 대조할 수 없다. 그러나 제삼자 업체가 이를 타깃 광고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 통계가 아닌 개인 정보의 정보를 직접 무단 수집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디지털민주주의센터(CDD) 등 9개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마스터카드의 마이클 미에바흐 최고경영자(CEO)에게 고객 정보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터카드의 월 책 대변인은 CBS에 “마스터카드의 카드 사용자의 데이터를 마케팅, 위치 추적, 타깃 광고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기업들이 대가를 받고 수집한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일은 마스터카드 이외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케팅 관련 전문 매체 마

케팅브루는 크레딧카드 업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제삼자 분석업체인 월랜드에 정보를 팔고 있으며, 결제 플랫폼 지원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자도 카드 사용자 정보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다가 2021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기반 비영리 재단 모질라는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터치 센서, 카메라, GPS 등의 운전자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제삼자에게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구글도 지난해 사용자가 위치 정보 공유를 차단했음에도 지속 추적한 것으로 밝혀져 40개 주에서 3억9150만 달러에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 업계에서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하는 활용처가 늘어나면서 거리를 주선하는 데이터 브로커 업체들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이 공유한 데이터는 인종, 지역, 나이, 학벌 등을 조사해 효과적인 맞춤형 광고 제공에 사용된다.

유은석 기자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GREEN

Essays for Kids (Grades 5-8)

VIOLET

Boarding Admissions (Grade 8)

BLUE

Essay Contests (Grades 8-11)

ORANGE

Journals (Grades 9-11)

BROWN

HYPS Portfolios (Grades 10-11)

RED

College Admissions (Grade 1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30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 최저가항공 홈페이지보다 저렴한 요금!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마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중앙일보 건물 2층 **703.256.0606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프레지오 카페점 옆 **410.480.0100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KOREAN AIR DELTA**
소매, 도매 직판점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채용 공고 에이전트(엘리콧시티 지점) 사무직(센터빌지점,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543.2322 레나 고 사장

탑여행사

가을단풍 특선

단풍기차관광 김세렌드

당일관광 \$159

10/20 대형버스 출발 마감임박
10/26
10/27 대형버스 출발
10/28 마감

단풍버스관광 스모키마운틴

2박3일 출발일 \$849 10월27(금)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Korea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의 전문 안내자와 함께 떠나는 원더풀 투어 항공 여행

세라 강, 해나 고
원더풀투어 판매담당 703.663.8534

2024

1차 4/16~4/26
2차 9/17~9/27
3차 10/15~10/25

\$2990

+항공
10박11일
제주2박 포함

특전 워싱턴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버스타어

특전 모든옵션포함 여수해상 케이블카/외도+ 해금강 유람선/해상 케이블카 충주호 단양팔경유람선 서귀포유람선

특전 최고급 호텔 숙박 제주롯데호텔/송도메리엇 거제스노캄/여수스노캄 경주라한/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서울노보텔엠베스터 등

특전 고향냄새 술술나는 먹거리 전주 비빔밥, 남도 한정식, 회정식, 한우육회비빔밥, 안동찜닭, 물회, 해물뚝배기와 옥동구이, 갈치조림 흑돼지구이등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 / 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100만원)/여(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 \$550 / 여 \$620

서울성모병원
한신메디피아
차음검진센터
녹십아이메드
현대아산병원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서남권 3박4일 매주 일 출발 \$849 +항공

동해권 4박5일 매주 금 출발 \$969 +항공

제주 2박3일 매주 수 출발 \$699 +항공

전국일주 9박10일 매주 일 출발 \$2299 +항공

일본 동경+ 한국 내륙일주
10박 11일 \$3490+항공

한국 내륙일주+ 베트남 다낭
10박 12일 \$2990+항공

일본 동경+ 한국 내륙일주+ 베트남 다낭
13박 15일 \$3990+항공

일/본/관/광
동경 3박4일 \$999+항공
오사카 3박4일 \$999+항공
후쿠오카 3박4일 \$999+항공
일본완전일주 9박9일 \$2690+항공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입

방콕/파타야
3박5일 \$499 +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맛포사면, 플로세움스,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항공잡비사원, 코끼리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바위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3박5일 \$599 +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할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5일 \$599 +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언프,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영묘, 생활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성안원극

다낭
3박5일 \$549 +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부본강, 일브레리코, 핑기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랑국립공원, 후에성, 타켄우사원, 신파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3박4일 \$769 +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라오슈제 야시장, 101빌딩, 사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련 황성당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랑 국립공원, 자우원거리

싱가폴
3박5일 \$989 +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라버린더스, 샌더슨 웨이 브릿지, 하치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나베이샌즈, 차이니아타운, 샌토사실, 실로스비티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5박6일 \$1350
출발일: 10/16, 10/23
출발일: 매주 월요일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나이아가라
2박3일 \$650
출발일: 10/9, 10/16
출발일: 매주 월요일

DC런치크루즈 \$169 주중 \$199 주말 티켓구입가능

미동부 베스트셀러
천심·뉴욕 나이아가라
3박4일 \$899
출발일: 매주 월요일

가을 버려코르는 두글과 NY 뉴욕 1박2일 /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필라델피아 \$150

마운트버논 & 알렉산드리아 \$150

2023 12/20 성막
Miracle of Christmas \$169 Manor Buffet 아이미야맛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알래스카
6박7일 \$1490+항공 매주월목
7박8일 \$1790+항공 매주월

캐나다록키
6박7일 \$970+항공
매주 일목

엘로스톤
3박4일 \$890+항공
매주 월금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항공 매주일

8대캐년 그랜드서클
6박7일 \$1300+항공

미서부일주
8박9일 \$1450+항공 매주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매주수

마운틴러시모어
3박4일 \$104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항공 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정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현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미국발 쇼크에 '검은 수요일' 주식·원화·채권 트리플 급락

4일 금융시장은 '검은 수요일'을 맞았다. 이날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하며 2400선에 턱걸이했다. 원화와 채권값 역시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트리플 악재'다. 미국발 긴축 장기화 우려에 미국 국채 금리가 4.8%를 뚫고 수퍼달러(달러 강세)가 되살아나면서다. 긴 연휴 기간 쌓인 대외 악재가 한번에 반영된 영향도 크다.

추석 연휴로 일주일 만에 문을 연 코스피는 파황게 질렸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1%(59.38) 하락한 2405.69로 장을 마쳤다. 3월 21일(2388.35) 이후 가장 낮다. 코스닥은 4%(33.62) 폭락하며 807.4로 마감했다. 두 시장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62조 7923억원 증발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의 '쌍끌이 팔자' 영향이 컸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코스닥에서 2차전지 열풍을 이끈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에코프로(-8.55%)와 에코프로비엠(-7.11%) 등 에코프로 형제주가 7% 이상 급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포스코퓨처엠(-6.54%), LG에너지솔루션(-4.3%)의 하락 폭이 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지는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14.2원 급락한(환율 상승) 1363.5원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 지난해 11월 10일(1377.5) 이후 가장 낮다. 국고채 금리는 크게 들쭉였다.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321%포인트 치솟은 연 4.351%로 장을 마쳤다. 레고



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5.07)보다 59.38포인트(2.41%) 하락한 2405.69에 마감됐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랜드 사태로 자금경색 우려가 커졌던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올랐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0.224%포인트 상승한 4.108%로 뛰었다.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데는 치솟은 미국 국채 금리 영향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4.823%까지 오른 뒤 연 4.803%에 마감했다. 특히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5% 선에 다다른 연 4.927%로 마감했다.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고용시장을 비롯해 여전히 탄탄한 경제지표가 금리 상승의 불쏘시개가 됐다.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도 국채 금리 상승을 부채질했다. 미국 국회에선 한 달째 임시 예산안이 통과했지만, 이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표결 끝에 해임되자 '미국 정부의 섣달' 공포감이 더욱 커지면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Fed의 고강도 긴축 장기화 우려에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져 미

국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고 말했다.

되살아난 수퍼달러도 국내 금융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4일 오후 4시 기준 107선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 데다 강달러가 지속하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9월 한 달 동안 거래소에서 1조원, 코스닥에서 1조 2000억원 등 총 2조 2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상당수 증시 전문가가 '고금리 장기화'와 수퍼달러 등 미국발 긴축 여진이 한동안 국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3분기 한국 기업 실적표(실적)에 기대감이 한풀 꺾인 점도 변수로 작용한다.

금융정보 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을 전망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50곳의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은 총 45조 4944

억원으로 한 달 전(46조 312억원)보다 5368억원(1.16%) 감소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2013년 수준의 '긴축 발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카드를 꺼냈을 때 신흥국의 통화는 물론 채권, 주식 가격이 급락하는 긴축 발작이 나타났다.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한국 경제를 뿌리째 뒤 흔드는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이른바 '3고(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어서다. 이 여파로 수출 회복세가 꺼지고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는 고사하고 'L자'형 경기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3고 현상은 소비 등 내수 부진을 부추길 수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가계와 기업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조달 및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그만큼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다"면서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재차 자극하면 실제 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수출 부진 속에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소비는 최근 들어 꺾이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 달보다 0.3% 줄며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전년 대비 감소 폭을 4.4%로 줄이며 회복세를 보인 수출에도 3고 현상은 악재다. 특히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경제학 교과서가 통하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중간재 수입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수출제품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연주·하남현 기자

중국 아시안게임에 6·4 천안문 시위 상징이?

중국에서 언급이 금지된 '6·4 천안문 민주화시위'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 우연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연출돼 관련 장면을 관영 매체가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육상 100m 허들 결승전 직후 금메달을 딴 중국 린위웨이 은메달리스트인 자국 동료 우옌니를 트랙 위에서 포옹했다(사진). 이 장면은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의 소셜미디어 유헤트 계정도 게재됐다. 이후 삭제됐다. 6번 레인에서 뛰던 린위웨이가 유니폼에 숫자 6을 달고, 4번 레인에서 뛰던 우옌니가 유니폼에 숫자 4를 단 채 포옹하면서 우연히 '6·4'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김성렬 교수, 12세 때 굶주림에 탈북 재탈북 이후 미국서 박사 학위 따 "통일 땀 북한에 대학 세우고 싶어"

"지역에서 통일과 북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산외대 국제학부 김성렬(38·사진) 교수가 4일 통화에서 한 말이다. 김 교수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부산외대 정교수로 임용됐다. 부산외대에 따르면 탈북민이 국내 대학 정교수가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남북관계론과 국제정치이론 강의를 맡았다.

1985년 함경북도 청진 태생인 김 교수에게 북한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건 굶주림이다. 90년대 들어 청진에선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일하던 식품매장에서 팔 물건이 동이 나자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TV를 팔았다. 이 돈으로 어머니는 북한 내 화교 등이 들어온 중국산 밀가루를 떼다가 장마당에서 파는 일을 했다. 하지만 화교가 밀가루를 직접 팔면서 이런 '중개상'도 힘들어졌다. 김 교수 어머니는 97년 3월 두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다. 당시 12살이던 김 교수는 "어머니가 나와 누나를 부둥켜안고 얼음장을 깨며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중국으로 탈출한 김 교수와 그의 누나는 공장에서 일했다. 3년 뒤 김 교수

가족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한신의 주로 북송됐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3개월가량 강제노역했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굶주림에 못 이겨 두만강을 건너 이들은 용서해주라"는 북한당국 지시에 따라 석방됐다.

김 교수는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살길이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가족이 살던 집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마땅히 신세를 질만한 친척도 없었다. 김 교수는 다시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다. 2000년 8월 북한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그는 첫 탈북 때 일하던 공장에 자리를 잡았다. 두 달쯤 지나 어머니와 누나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왔다.

김 교수가 한국으로 온 건 2005년이다. 베이징 민박집에서 일하던 어머

니가 우연히 알게 된 브로커를 통해 서였다. 김 교수는 "한국으로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1년여 만에 초·중·고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07년 한동대 국제어문학부에 입학했다. 졸업까지 7년이 걸렸다. 김 교수는 "탈북과 북송을 경험하며 국제정치,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을 거쳐 미국 정부 장학금인 '폴브라이트 프로그래밍' 1기 탈북민 장학생으로 미국 명문 시리우스대 맥스웰스쿨에서 유학해 박사 학위를 따다. 그는 "통일되면 북한에 대학교를 세우고, 학문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탈북·북송·재탈북 청년, 부산외대 정교수 됐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중국선 다음 접속 안되는데 중국 응원 2919만건 ... “이례적”

(카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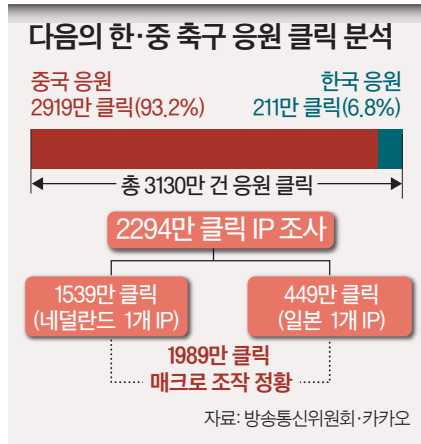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는 4일 한국-중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아시안게임 8강전(지난 1일) 당시 네덜란드와 일본의 2개 IP에서 1989만 건의 매크로를 활용한 응원 클릭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부터 이런 내용의 현안 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속하게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것을 방치하면 바로 국가 문란 사태가 된다”며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

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여론에서 ‘차이나 게이트’ 의혹까지 제기한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을 2대 0으로 꺾은 뒤 벌어졌다.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엔 총 3130만 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중국 응원이 2919만 건(93.2%)으로 한국 응원 211만 건(6.8%)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됐다. 중국은 다음 접속이 차단된 국가다.

논란이 커지자 카카오는 한-중 8강전 응원페이지 3130만 건 클릭 가운데 2294만 건에 대해 IP 주소를 긴급히 확인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1개 IP에서 1539만 건, 일본 1개 IP에서 449만 건이 각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경기 직후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진 이례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



다”며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원 클릭이 실제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시작돼 단순히 두 나라 인터넷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는 “클릭 응원이 로그인이나 횡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이라

고 해명했지만, 외국 가능한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75% 이상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실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통위는 범부처 TF를 꾸려 재발 방지 및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기 문란·사회적 재앙” 등의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트라우마’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17년 19대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8800만 건의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취약한 포털의 약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 회견을 열어 “특정 반국가세력들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매크로 조작 행위 등은 드루킹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이는 교묘한 도구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댓글 국적표기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야당은 ‘포털 옥죄기’라고 반발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작 운운하는 것은 호들갑”이라며 “포털을 검열하고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억지 근거로 삼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백태연·김정재·김경미 기자

윤 대통령 “한·미훈련 말라는 가짜평화론 활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유엔사를 해제해야 한다’ ‘중전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경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 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주장하며 유엔사 해체와 중전선언 등을 제안했던 것을 가짜평화론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를 마무리하면서는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국내외 파독(派獨)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서울 워커히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현지 대통령이 독일 파견 근로자만을 초청해 오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1960·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과도근무 생활은 여러분 개인의 과거 추억이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위대한 한 국민의 산업사이고 이민사”라며 “한분 한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 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2년 연속 재향군인회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길에 쓰러진 40대...경찰이 손가락으로 콜라 먹여 살렸다

길을 걷던 중 저혈당으로 쓰러진 40대 남성이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강원 태백시 황지동의 한 길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도로 옆 인도에서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관들은 A씨의 상태를 살렸고,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던 A씨는 본인이 저혈당이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알

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인근 마트로 달려가 콜라를 구매하고 근처 모텔에서 손가락과 빨대를 구해왔다.

이들은 손가락에 콜라를 담아 A씨에게 조금씩 먹이며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관들의 빠른 대처에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최하영 순경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오니 팔에 상처가 나 있는 등 심상치 않았



쓰러진 저혈당 시민의 상태를 살피는 경찰들. [사진 강원경찰청]

다”며 “빠르게 조치해 응급환자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갑자기 죽어서 캐리어 담았다”...백골 아이 4년 보관한 엄마

대전에서 숨진 지 4년이 지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40분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백골 상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집주인 신고가 접수됐다. 시체는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보관된 상태로, 백골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집주인은 2021년 9월쯤 빌라 원룸에 살던 A씨(30)가 월세가 밀리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에 나섰다. 소송을 통해 해야만 A씨가 살고 있던 원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당시 집주인은 정리한 A씨의 짐을 빌라 창고에 보관했다가 최근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캐리어에 담긴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잠적한 A씨가 인근 서구 갈마동의 빌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4일 자정쯤 시신 유기 및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4~5일쯤 지나 갑자기 숨졌다. 무서워서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 성별과 친부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견된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였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 출산한 탓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치단체와 경찰 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출산한 자녀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 치사)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시체는 숨진 지 4년이 지나 성별 구분이 어렵다”며 “피의자를 대상으로 출생과 사망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 숨졌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북, 한국 조선업체 해킹 시도... IT 보수업체 PC 통해 우회침투

북한이 최근 국내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해킹을 시도한 정황을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4일 “지난 8~9월 북한 해킹조직이 유수의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며 “주요 수법은 IT 유지·보수 업체의 PC를 잠거 및 우회 침투하거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피싱(phishing·통신 사기) 메일을 유묘한 후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조선업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김정일의 중·대형 군함 건조 지시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공격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이 최근 선보인 다수의 신형 군사기술은 “해킹으로 입수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해군력 강화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둘째)이 지난달 6일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용함' 진수식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9월 북한 해킹 조직이 유수의 국내 조선업체들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중순 해군 동해 함대를 시찰했고, 같은 달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지난달 3일엔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를 시찰하는 모습이 보도됐다. 특히 지난달 6일엔 ‘김군옥 영용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발을 탑재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중형 잠수함들도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 잠수함들로 개조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미국 군사 전문매체 ‘워 쏬’은 ‘김군옥 영용함’을 두고 “골동품인 로미오급 잠수함을 기괴(bizarre)하게 개조했다”며 “프랑켄슈타인처럼 만든 잠수함”, 즉 ‘프랑켄서브(Frankensub)’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러시아 방문 중에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기지를 찾아 샤푸시니코프 원수함에 올라 해상작전능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지휘실 등을 직접 시찰했다.

박원근(북한학과) 이화여대 교수는 “해군력이 낙후된 북한이 당장 잠수함 혹은 전투함 등을 만들려면 선박 건조 및 첨단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 기업 해킹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은 지난달 30일 최선희 외무상을 시작으로 외무성·원자력공업성·국방성 관계자들이 잇달아 담화를 쏟아내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4일에도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최근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맞서 자신들의 핵 보유와 위성 발사가 정당한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0월로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비롯한 군사 도발을 앞두고 대외적인 여건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국회 정부위원회가 4일 정몽구 HDC 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회장에 대해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나오라고 하는 등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을 채택했다.

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미판매 책임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

정무위, 정몽구·최정민 등 기업인 19명 국감 증인 채택

(HDC그룹 회장) (천재교육그룹 회장)

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경일 SK에코 플랜트 대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는 튀르키예 차나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분학 쿠팡 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의 스프레스 한국 대표, 피터 콰이다스 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무위는 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을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11일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흥원식 하이

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중당 오기형 의원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빠

졌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반발해 청문회 보이콧 의사를 밝혔

전민구 기자

이규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국회 가결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6일 이후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168석 민주당의 찬반 입장에 따라 임명 여부가 갈린다.

민주당의 찬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이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를 던질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비공개회의에서 “인사 투표는 원래 자유투표다” “당론으로 정하면 민주당 전체의 선택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론은 결정하지 못했지만, 민주당 내 여론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

홍익표, 취임 후 첫 의총서 “윤 정부 독주 막겠다” 강경 기조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여섯째)와 신임 원내대표단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원들은 이날 오전 각 의원실에 전진을 보내 ▶부도덕한 개인과 가족의 비위 의혹 ▶가족회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재산 형성 ▶시대에 뒤떨어진 성인지 감수성 등 9가지로 열거하며 “간곡하고도 단호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야당 대표와는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래놓고 ‘가결해 달라’고 말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본회의 직전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부터 이틀간 야당 의원실마다 60여 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전달하고 간부들이 일일이 야당 의원을 찾아 가결을 호소하는 ‘읍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전주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를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한 힘 자랑”이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6일 이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첫 대법원장 낙마 사례가 된다.

취임 후 처음 의총을 주재한 홍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을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국민이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국정조사) 패스트트랙을 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뒤 정부·여당을 겨냥한 강경 기조에 더욱 힘을 실고 있는 것이다.

의총에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여진도 이어졌다. 비공개회의에선 지난달 21일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 ‘2선 후퇴’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두고 자유토론이 있었다. 의혹을 제기한 김정호 의원은 “각각 대상에 확인하지 않고 말했다”며 사과했고, 김영진 당 대표 정무실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주일째 녹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리해서 천명·비명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어렵다”며 “대표는 당 내부 사정에는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강성 지지자들) 자중시켜야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인다. 오히려 즐기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성지원·강보현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모 부근 새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장실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전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꼭,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베를린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

11350 Random Hills Rd., #870 6701 Democracy Blvd., #300 13001 I St. NW #400E

Fairfax, VA 22030 Bethesda, MD 20817 Washington DC 20005

우리말 바꾸기

‘피다’와 ‘꼬시다’

그렇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속이거나 부추겨서 자기 생각대로 끄는 것을 ‘피다’라고 한다. “대출금리를 낮춰 주겠다고 꼬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 등처럼 쓰인다.

‘피다’를 대신할 수 있는 동사가 또 있다. ‘꼬이다’로 표현해도 된다. “투자만 하면 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꼬여 돈만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와 같이 사용한다. ‘피다’와 ‘꼬이다’는 복수표준어다.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다. 이런 유형의 복수표준어에는 ‘괴다/고이다, 썩다/썩이다, 죄다/죄이다, 쪼다/쪼이다’ 등이 있다.

‘꼬드기다’도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어떠한 일을 하도록 남의 마음을 꼬여 부추기다는 뜻이다. “금연한 지 두달째인데 꼬드기지 마”처럼 사용한다.

입말에서 세를 넓힌 ‘꼬시다’는 뒤늦게 표준어가 됐다. ‘피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랐다. 원래는 ‘고소하다’의 강원·경상·전라도 사투리였다. 이성과 사귀려고 수작을 부리다 등의 의미로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2014년 표준말이 됐다. ‘피다’와 어감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 표준어로 추가한 경우다. “먹는 걸로 꼬시는 거야?”와 같이 사용한다.

‘피다/썩이다, 꼬드기다, 꼬시다’는 말맛 차이가 있으나 상대의 마음을 꼬여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끄는 것을 뜻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대북전단 금지법 헌재서 무효판결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아 마땅하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일명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다.

2020년 봄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리자 그해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빠라를 날리는 쓰레기(탈북민 지칭)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없다면 다른 기본권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않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 헌법보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한국 헌법 21조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점’을 위헌으로 보았다. 전 단 살포 금지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뿐더러, 여기에 국가가 형벌권까지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좌파 정부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된 논리로 들었던 ‘안보 위협 초래’에 대해서도 주객이 전도된 논리라고 꼬집었다.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접경 지역 긴장 유발은 전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사실임을 알리는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 체제에 불과하다.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폭정이 낱알이 알려지면 언제 권좌가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을 알려주는 대북 전단과 휴전선 일대 확산기 방송이다.

그동안 탈북민 단체들이 악법에 의해 탄압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늦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은 잘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과 국제규범에 위배된다. 폐기가 마땅하다.

이아침에

늦은 오후의 모놀로그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창밖으로 해가 길다. 어찌 된 일인지 아무런 스케줄이 없다. 내친김에 T.J.맥스도 갔고 한인 마켓에 가서 장도 한 보파리 보고 왔는데도 햇빛은 아직도 강렬하다.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잡고 TV를 켜니 새로운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고 전에 하던 드라마와 영화를 재방송하고 있다. 그렇다고 심심하다고 바쁜 친구에게 전화하기 망설여지는 오늘.

매일 오는 카톡도 조용해서, 꽃이나 나무 그림, 커피잔을 배경으로 한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는 주로 귀등으로 흘러들고 보는 문자 메시지도 지루하다.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간간히 비도 몇 번 내리더니 집 앞에 있는 돌베나무에 꽃이 피었다. 봄에 하얀 눈송이 같은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 흡사 지난봄에 미처 개화하지 못한

꽃을 지금 피워대는 것 같았다. 나무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간직했다가 원할 때 꺼내서 쓰는 것처럼 보였다.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해결 방법이 없는 사건을 기억에서 꺼내 곱씹으려 했으나,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보내는 시간은 생산적이지 않아 아깝다. 차라리 이런 자투리 시간을 보자기에 고이 써서 차곡차곡 모아 놓으면 좋겠다.

짐 크로스가 부른 ‘Time in a bottle(병 속의 시간)’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 ‘만약 병 속의 시간을 모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영원함이 지나갈 때까지 하루하루를 저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아껴두었다가 당신과 함께 보내는 데 쓰고 싶습니다’. 시간을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싶다는 소망. 지금 나는 이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세상만사가 내 손아귀에 있는 느낌이 들 때, 구름을 걷는 느낌이 들 때,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을 볼 때, 아니면 시험을 볼 때, 마감 시간에 쫓길 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때, 소중히 보관한 시간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 풀어서 쓸 수 있다면.

아니면, 우울할 때, 세상에서 시달릴 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올라올 때, 그런 시간을 풍광 묶어 영원히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던져 버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는 이런 글이 있다. ‘당신이 시간의 씨앗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떤 곡식이 자랄지, 어떤 곡식이 나지 않을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씨앗이라니. 역시 대가다. 그가 성령 옆으로 다가온 느낌이다.’

어느덧 해는 찾아들고 있다. 잠자리가 나비보다 눈에 더 띄는 오늘. 나는 돌베나무 꽃위 위에 앉아 있었다.

이리나 수필가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부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1.9%	42.3%	2.3%	0.0%
매우좋은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북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ca 좌골신경통

영치 꼬리뼈

얼드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펴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뭉치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필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병정놀이’가 아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도심에서 건군 7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 유사시 지하 병커에 숨은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이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주한미군 330여 명이 동참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줬다.

이날 시가행진은 10년 만이었다. 2013년이 마지막이었지만, 원래 5년마다 여는 게 원칙이었다. 매년 시가행진을 치르는 게 번잡하고 예산도 들기 때문에 매 5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5년이 돌아온 2018년 건군 70주년 시가행진을 걸렸다. “국군의날 행사 때마다 장병들이 시가행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었기에 무력 시위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속내였다. 싸이와 걸그룹의 공연이 시가행진을 대체했다.

북한 의식해 행사 거른 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아예 ‘시가행진 청산’이라는 대못을 박으려고 했다. 5년 주기로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에서 도보·기계화부대의 시가행진을 하도록 규정한 부대관리 훈령 제313조(대규모 행사)에서 2019년 4월 관련 조항을 다 들어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가행진을 되살렸다. 그러나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참여연대·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시가행진 대열과 멀리 떨어진 서울시청 앞에서 “무력시위는 또 다른 무력시위를, 전쟁 연습은 또 다른 전쟁 연습을, 군비 경쟁의 악순환과 안보 딜레마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군대의 도심 시가행진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병정놀이라고 깎아내린다. 과연 그럴까.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다. ‘Military Parade(군대 행진)’란 표제어에서 52개국이 주기적으로 시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리 많이 안 보였기



비가 내렸던 지난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기계화부대가 서울 도심(덕수궁 앞)을 지나고 있다. 김중호 기자

때문에 실제 시가행진하는 나라가 52개보다 더 있을 것이라 추정이다. 제멋대로 민주주의를 국가로 분류하지 않으려고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빌렸다. 이 지수는 매년 167개국을 조사해 만들어진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세계 23위다.

군대의 도심 행진 국가는 민주주의에서부터 권위주의, 공산주의 등 정치체제가 다양했다. 폴란드(공동 46위, 이하 지난해 민주주의 지수)는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날이면 수도 바르샤바에서 시가행진을 벌인다. 올해에는 한국이 수출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가 등장했다. 인도(공동 46위)는 제헌절과 건국절을 겸하는 매년 1월 26일 공화국의 날에 시가행진을 크게 치른다. 초청 외국 정장 앞에서 핵무기까지 자랑한다.

한국산 자주포 앞세운 핀란드군

이들 나라가 민주주의 역사가 짧거나(폴란드,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다(인도)고 치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민주주의 진영인 서유럽을 보자. 프랑스(22위) 파리의 바스티유 데이(프랑스 혁명 기념일, 7월 14일) 시가행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벨기에(36위)도 매년 7월 21일 독립기념일에 수도 브뤼셀에서 전투기와 전차를 동원해 시가행진을 한다.

진보적 인사들이 자주 모델로 삼는 북유럽은 어떨까. 핀란드(5위)와 스웨덴(4위)은 매년 6월 4일 국가계약일과 6월 6일 국경일엔 각각 수도 헬싱키와 스톡홀름에서 퍼레이드를 펼친다. 핀란드에선 2017년부터 한국의 K9 자주포가 등장했다. 스웨덴 육군은 창군 500주년을 맞은 지난 5월 24일엔 스톡홀름에서 무기 시연까지 진행했다.

영국(18위)과 네덜란드(9위)는 전차·장갑차 없이 도보 행진만을 진행한다. 미국(30위)에선 독립

기념일(7월 4일) 등 주요 기념일이면 현역 장병과 참전 용사, 학군단 등의 도보 행진을 볼 수 있는 지역이 꽤 많다. 일본(16위)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지만, 11월 1일 자위대기념일 관례식에 국민을 초청한다. 이처럼 시가행진은 군국주의나 독재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의 시가행진은 북한·중국과 같은 공산주의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의 열병식과 본질에서 다르다. 민주주의의 군은 국민의 군이기 때문이다. 당(공산주의)이나 독재자(권위주의)에게 충성하는 군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시가행진은 한마디로 군이 진정한 통수권자인 국민의 사열을 받으며 충성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민은 군의 준비태세를 살펴본 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행사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군 장병의 88%, 일반 시민의 72%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찬성한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시가행진 때 교통 통제 때문에 불만이 불거졌지만, 많은 시민이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능률한 군 장병에게 박수를 보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시가행진은 대외적 의미도 갖는다. 첨단 무기를 내보이며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면 이를 사용하는 뜻을 알린다. 특히 한국과 같은 분단국가에서 중요하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당장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게 시급해졌다.

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공격하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상대가 주저하게 되는데 이것은 억제(Deterrence)의 작동원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강조한 게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민을 안심시키고, 위협도 억제하는 시가행진을 멈춰 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철재 군사안보연구소장·국방선임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11월 수원의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2000만원, 차곡차곡 모은 월급에 대출금을 더해 마련한 종잣돈이다.

신축 오피스텔이다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데다 정확한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당시 전세 수수에 비해 매물은 적었고, 근저당을 낀 전세 계약은 흔한 일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이 잘 된다고 안심시켰다.

2년 후 A씨는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곧 만기가 돌아오지만 집주인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가 허탈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수시로 감정이 북받친다”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일부가 법적 대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에 나섰고, A씨처럼 만기를 앞둔 예비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임대인 B씨와 그의 아내 C씨의 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 6명은 만기가 지나도록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달 이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씨 부부는 수원 권선구·영통구 등에 빌라 등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채 임대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피해자와 예비 피해자 200여 명은 현재 카카오톱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해당 임대인에 대한 피해 사례도 100건이 넘는다. 하지

만 경찰 수사는 이제 시작한 데다,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서 기존 전세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피해자 상당수는 20~30세대. A씨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임차인 대부분은 수원 일대에 직장을 둔 회사원이거나, 또 다른 건물에는 20대 취업 준비생도 많이 살고 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약성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 10명 중 8명(8627명 중 77.9%)도 2030세대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피해자들이 자책과 절망을 거듭하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최소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도, 당신의 아들딸도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경희 경제부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시 설

극단적 소수에게 정지된 미국 의회, 남의 일 아니다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미국 하원의장이 해임된 건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이 269일 만에 임기 중 물러나면서 내년 미국 예산안 협의는 물론 미 하원은 당분간 식물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표결은 공화당의 강경 보수 계파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결의안에 따라 이뤄졌다. 매카시 의장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의 섯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도, 작

**미 하원, 234년 만의 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국방수권법 등 한국에 미칠 악영향 대비를**

원 전원이 해임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점도 의외다. 매카시 의장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이탈로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연상시킨다. 하원의장 해임에 찬성한 숫자가 216명으로 반대(210표)를 근소하게 앞섰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20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강경 우파 의원 8명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의장 해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것 역시,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인원에 당론이 좌우되거나 대화 거부·단식에 나서는 한국 정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손가락질할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 타산 지석 성찰의 대상인 셈

이다. 무엇보다 미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인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관련한 법안 심사 지연에 따른 손익을 꼼꼼하게 따져 대비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해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한반도 미사일 방어 등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캐스팅 보트를 쥔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안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의회 외교를 통한 한·미 동맹 관리가 시급해진 때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려워도 이번엔 해내야

지난달 취임한 김동철 한전 사장은 나주 본사 사장실에 ‘위룸’(비상경영 상황실) 문패를 달고 야전집대에서 자며 퇴근하지 않고 지낸다.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위룸에서 보냈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다. 200조원이 넘는 역대급 부채를 안고 있는 거대 공기업에 비전문가를 낙하산으로 앉혔다는 점에서 비판이 많았다. 그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고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로 부르기에 어려모로 어울리지 않는다. 김 사장이 굳이 야전집대 생활이라는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것도 이런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일 것이다.

김 사장이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자금 차입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전력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란 그의 현실 인식도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지난달 취임사에서 “전기요금에 모든 것을 거는 회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였지만 위룸 생활에서 벼랑 앞에 선 한전의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본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탓에 생긴 47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2021년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 부담’을

내세우는 정부의 정치 논리에 놀려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기준 연료비를 일부 인상했지만 짙음 울리는 데 그쳤다.

정부는 아직도 4분기 전기요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석 민심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고 한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역마진 해소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고물가도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전기요금 동결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와 이로 인한 경상적자를 더 걱정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한전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후시라도 한전 구조조정을 핑계로 요금 인상을 미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전 구조조정 규모를 늘리려다 미래에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전문가가 많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은 문제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김동철 사장도 정치인 출신 수장의 자질을 잘 살려 정부와 정치권을 잘 설득 하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2023년은 대기업이 휘청이면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가늠해 보기 좋은 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애초 잡아놓은 세수에 한참 모자라는 항목이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41.2%)와 법인세(25조4000억원, -24.2%)다. 양도세 수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한편 오른 부동산 가격 하락의 결과물이기도 하니 전적으로 나쁘다고만 할 것도 아니다. 법인세 감소는 얘기가 다르다. 한국 경제에 올리는 경고음이다.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81조7000억원으로 2021년(119조7000억원)보다 31.8% 줄었다. 상황은 내년에 훨씬 심각해진다. 시가총액 100대 비금융 기업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63.5% 감소했다. ‘법인세 절벽’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세 납부액 부동의 1위였던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불황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이 1조3100억원에 불과했다. 작년보다 약 95% 급감했다. 이 회사가 상반기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2412억원, 작년 같은 기간(7조 1071억원)보다 96.6% 줄었다.

1년 전 윤석열 정부의 1호 경제정책이었던 법인세 감세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크게 굴절됐다. 애초 정부 계획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25%→22%)하는 것이었으나, 결국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민주당의 논리는 ‘조부자 감세 반대’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조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2021년 최고세율 대상은 법인세 신고 기업의 0.01%인 103곳. 민주당이 조부자라고 막아선 0.01%의 대기업이 그해 법인세 수의 41%를 담당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대기업들이 침체에 빠지자 곧바로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어디 세수뿐일까. 대기업 부진은 고용 시장에 한파를 몰고 온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8개월, 9개월 연속 줄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개월째 감소 중이다. 인구 감소 탓만은 아니다. 급여와 복지혜택 좋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도 큰 이유다. 그런데 대기업 신규 채용문은 되레 좁아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500대 기업 조사에서 응답 기업 3곳 중 2곳(64.6%)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마저 채용을 꺼리면 고용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 불황은 상당수 중소기업도 위기에 빠뜨린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1차 협력사만 740여 곳이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에 글로벌 경제전쟁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그

**세수 부족해지고 고용 시장 한파
대기업 부진에 한국 경제 휘청
반감 잡고 대기업 성장 지원해야**

전쟁은 실상 각국 대표 기업의 정면 승부이기도 하다. 파운드리 반도체는 삼성과 대만 TSMC,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와 테슬라, 스마트폰은 삼성과 애플, 2차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중국 CATL의 대결이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 한국 경제의 명운도 위태로워진다.

비정한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대기업들이 과연 애플, TSMC, 테슬라, CATL만큼의 지원을 받는지부터 돌아 봐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엔 대기업을 초부자 프레임에 가두고 ‘반(反)대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이가 상당하다. 그들은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일으키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수많은 소액주주가 일반 국민이라는 점도 무시한다. 대기업 지원은 특혜라며 반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수많은 규제는 옹호한다. 정치가 정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부 터덜터덜해야 한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 제1차 인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정성웅 보험

사업체 보험



여기 한번 보세요!

보험료 절약의 기회!

정성웅 보험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 사업체에 꼭 알맞은 보험을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 중그로서리, 미용실, 세탁소, 이발소, 컨비니언 스토어, 사진관, 옷가게, 홈세일(식품/잡화/도매) 등 ...

현재 보험료에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

업무용 차량 보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건축업, HVAC, 컨트렉터, 식당, 그로서리, 세탁소...
업소용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업체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식당 보험료

같은 조건에 보험료 더 낮 이유 없다!!

업종	기존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
식당	\$3,700	→ \$2,100
치킨가게	\$2,150	→ \$1,100
아침, 점심 델리	\$1,800	→ \$1,200
델리	\$1,300	→ \$700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표기된 금액은 실제 계약금액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703-825-2945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실 때,
영어 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저희 직원과 연결 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28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OCT. 5th - OCT. 12th, 2023

단백질이 풍부하고 담백한



틸라피아 필렛 스페셜 세일

Special Tilapia Fillet, Special Sale!



편집 중 오답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정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Sterling, VA
39755
VA 20155

Centreville, VA
3900
VA 20121

Chantilly, VA
13850
VA 20151

Annandale, VA
5324
VA 22181

Ashburn, VA
43000
VA 20117

Herndon, VA
4800
VA 20151

Elliott City, MD
2971
MD 21113

Catonville, MD
3501
MD 21128

Rockville, MD
102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D 20878

Silver Spring, MD
13625-A
MD 20908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October 5, 2023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올 가을 우리집 '조용한 럭셔리' 로 꾸며볼까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

최근 패션계에선 '조용한 럭셔리(Quiet Luxury)'가 핫 트렌드다. 올초부터 패션계를 강타한 이 '조용한 럭셔리'는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그러나 한눈에도 럭셔리 패션임을 알 수 있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지난 봄 세계 패셔니스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기네트 펠트로우가 법정 출두 시 입었던 무채색 계열의 캐시미어 코트와 스웨터, 핸드백 등이 대표적인 '조용한 럭셔리' 패션. 그녀의 패션에서도 알 수 있듯 '조용한 럭셔리'는 기본 아이템에 충실하되 고급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패션 트렌드는 인테리어 업계에도 빠르게 유입돼 최근 이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가 주목 받고 있다. 심플하면서도 미니멀한 디자인과 럭셔리 소재를 중심으로, 튀는 디자인보다는 시대를 초월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인 '조용한 럭셔리'를 실제 우리집 인테리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알아봤다

▶미니멀리즘
'조용한 럭셔리' 패션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인데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 역시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함이 포인트. 따라서 집안의 잡다한 것들만 깨끗이 청소해도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의 밑그림은 완성된 셈이다. 일단 밑그림이 준비됐다면 복잡한 패턴이나 값비싼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걸치는 것은 절대 금물인 패션처럼 인테리어 역시 깔끔하면서도 단순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너무 화려한 패턴의 패브릭이나 가구보다는 유리, 세라믹, 목재, 양모와 같은 천연 소재 가구나 패브릭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무채색 계열의 가구와 페인트, 고급 소재, 최소한의 장식 등으로 은근한 고급스러움이 핵심이다. (unsplash.com 캡처)

은근히 고급스런 분위기 연출이 관건 천연 원목, 은은한 조명 등 고려할 만

소품을 이용해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고급 소재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배우 채정안은 말했다. "진짜 패션 고수들의 싸움은 디자인이 아닌 소재 싸움"이라고. 그렇다. 인테리어라 해서 크게 다를바 없다. 특히 '조용한 럭셔리'의 핵심은 시대를 초월한 고급 소재. 따라서 무조건 명품이라고, 유명 디자이너 제품이라고 무턱대고 구입하는 것이 아닌 좋은 소재로 만든 가구와 장식품 등에 투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물론 정해진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고급 소재로 꾸밀 수는 없는 노릇. 대신 바닥 한 곳은 원목에 투자한다면, 대리석 키친 아일랜드, 고급 면 침구 등으로 포인트를 주

▶뉴트럴 컬러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의 핵심은 미니멀리즘이기에 컬러 역시 튀는 컬러보다는 채도가 낮은 무채색 컬러(neutral color)가 기본. 그렇다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화이트 컬러의 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회백색, 회갈색, 베이지처럼 온화하면서도 예지있는 컬러가 좋다. 여기에 세이지 그린, 톤다운된 블루 등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액센트 컬러와 매치하면 보다 더 세련돼 보인다. 이들 컬러 매치는 고급 스파나 부티크 호텔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컬러 조합이다.
▶조명이 핵심

조명만 잘 해도 고급스런 느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풍부한 자연 채광은 기본. 조명 디자이너들은 "실내에 고급스런 느낌을 더하기 위해선 빛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램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조명은 뉴트럴 컬러 페인트나 가구와 어우러져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런 느낌을 준다"고 조언했다.
▶가구에 투자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구 교체. 특히 거실 소파나 체어를 바꾸면 분위기 전환에 가장 효과적이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트렌드를 쫓기 보다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품질 좋은 가구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이익"이라고 귀띔한다.
이주현 객원기자
▶4면 '인테리어'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완벽한 전문인 구성 및 워싱턴 지역 최고 공격 마케팅 전략 부동산 팀

부동산 명품 브랜드, REALTYONEGROUP 슈나이더팀 부동산을 찾으십시오!

워싱턴 지역 주택, 상가, 사업체 매매 및 구입 상담 환영
압도적인 규모, 선도적인 마케팅
혁신적인 교육, 보편적인 원칙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사업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투자 컨설팅

대표 **승경호**
703.928.5990
ke@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영국 경제 값아먹는 '연금 3중 잠금제' ... 여야는 폭탄 돌리기

(triple lock)

연금개혁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영국이 또다시 연금개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 고갈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내년 총선에서 노년층 표를 의식해 연금개혁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칫 '연금발(發) 경제 쇼크'가 불어닥칠 것이라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연금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멜 스트라이드 노동연금부 장관이다. 스트라이드 장관은 지난달 12일 BBC 라디오에 출연해 "공적 연금의 '삼중 잠금(triple lock)' 제도는 더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다른 사람(미래 세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중 잠금제도, 보수당 정권 탈환 기어

'삼중 잠금' 제도는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의 핵심 공약이었다.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신국가연금'에 대해 매년 ▶임금 상승률(매월 5~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부가 정한 최소 연금급여 상승률(2.5%) 등 세 가지 지표 중 가장 높은 것에 연동해 이듬해 연금 지급 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노년층이 갑작스럽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제도는 노년층의 표몰이를 이끈 '효자 공약'이 됐고, 보수당이 1996년 이후 14년 만에 정권을 재탈환하는 데 기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가 제도를 도입하기 10여년 전 전체 고령 인구의 30%에 육박하던 노인 빈곤율은 제도 도입 3년 후 15%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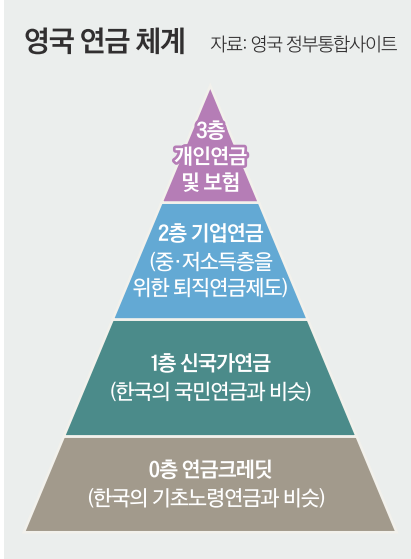
하지만 저성장, 저물가 상황에서 도입됐던 이 제도는 살인적인 고물가 상황을 겪고 있는 현재 영국 경제에 맞지 않게 됐다. 연금 상승률이 지표에 연동되다 보니 임금 상승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재무부의 고민도



리시 수석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임금·물가·최소 연금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지수 반영해 연금 인상 내년 1200만명에 3조원 더 줘야



등달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영국의 임금 상승률은 7.8%로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상승률은 8.5%에 달한다. 삼중 잠금 제도를 적용하면 내년에 1200만명의 퇴직자에게 8.5% 인상된 연금을 줘야 한다

올해 4월 영국의 신국가연금(IFS)은 전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10.1% 인상된 월 134만원 정도인데, 내년 4월은 올해 수치를 반영해서 8.5% 인상분인 월 147만원 정도를 1200만명 퇴직자가 받게 된다.

영국 재정연구소(IFS)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추가로 20억 파운드(3조 29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실제로 영국의 2010년 이후 국가 연금은 약 60% 오른 반면 평균 소득은 40% 인상됐다. 노동에 대한 보상보다 연금 지급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

상이다. 향후 상황은 더 안 좋다. IFS에 따르면 50년 뒤면 영국인 4명 중 1명은 연금 수급자가 된다. 반면 출산율 감소로 노동 가능 연령은 지금보다 3분의 2미만으로 줄어든다. 쓸 돈은 많고 곳간을 메울 사람은 적은 상황에서 삼중 잠금 제도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IFS는 "이대로 가면 신국가연금 지급 규모가 50년 안에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7.5%에 가까워진다"며 "국가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인디펜던트는 "삼중 잠금장치가 이제 나라 곳간을 쪼먹는 제도가 됐다"며 "현재 40세 미만인 젊은 층은 연금 자체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 불안감이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다. 영국 애덤스미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노인정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영국 사회에서는 젊은 이들이 손해를 보고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등 세대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영국 정치권은 총선 이후로 판단을 미루고만 있다. 리시 수석 총리는 "변동 없이 삼중 잠금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선거 이후에도 유지하겠다는 보수당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전문가 "영국 상황, 한국과 다름없어"

삼중 잠금장치 도입에 관여했던 전 자유민주당 소속 스티브 웹 하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를 버리는 건 집권 보수당이 표밭 중심부에 미사일 폭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도 "하기 싫은 결심"을 보수당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나온 제도가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는지 엿볼 수 있다"며 "영국처럼 과거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도 재정 불안 요소가 언제든지 다시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독일·일본·스웨덴 등이 시행 중인 평균 수명, 출생률, 경제성장률 등 여건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연금 자동 안전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영국의 상황은 주어만 바꾸면 한국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연금개혁을 추진해 책임 정당이 될지, 연금개혁을 미뤄 미래 세대에 전가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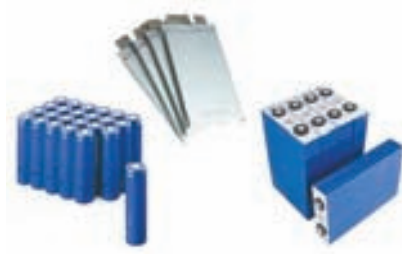
김민정 기자

백우진의 돈의 세계

전기시대의 자원 개발

자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발견된다. 인류는 자원 고갈 위기에 처할 때면 열망과 창의력, 끈기로 새로운 부존 장소를 찾거나 대체 자원을 개발해왔다. 에너지 자원의 경우, 일례로 19세기 말 석탄 소진이라는 도전에 대응해 석유를 찾아냈다.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석유에서

전기로 바뀌고 있다. 전기시대의 필수 자원이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니켈과 리튬을 비롯한 금속 광물이다.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해나가려면 니켈과 리튬을 점점 더 많이 캐내야 한다. 세계 각국이 205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에는 2020년에 비해 니켈은 19배, 리튬은 42배 필요하다. 국제에너지



지기구(IEA)의 2021년 전망이다. 새로 주목받는 니켈 부존 장소가 심해져다. 특히 하와이 동남쪽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역(CCZ)'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적 450만km²이곳

의 해저에는 니켈만 3억4000만t 매장돼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지하 매장량의 3배가 넘는다. 니켈은 망간단괴(團塊)에 함유되어 있다. 지름이 3~4cm인 망간단괴에는 철과 망간, 코발트, 니켈, 크롬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2002년 CCZ에 독점 탐사권 7만5000km²를 확보해 채굴 기술을 가다듬어왔다.

금속 광물을 찾는 눈은 이미 우주로도 향했다. 일차 대상으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프시케가 정해졌

다. 최대 지름이 226km인 프시케는 금과 니켈, 철 같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해저 광물은 환경 측면에서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목표를 탄 소중립에 맞추면 심해저 광물 채굴은 기존 방법보다 친환경적이다. 심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반대가 있다. 심해저 광물을 활용하려면 열망과 창의력, 끈기 외에 마음이 하나 더 필요하다. 여러 목표를 조정하는 지혜다.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주) 대표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클립턴 싱글홈	우드브릿지 타운홈
\$985,000	\$680,000	\$1,350,000	\$400,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Woo's Auto Repair Service

엘리컷 BP가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슬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 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자산 빼고 소득만 따지는 빈곤율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 많아 '하위 70%' 기초연금 기준 손질 진짜 어려운 고령층 집중지원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이 다른 연령 대비 비교적 많은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따진 빈곤율에는 착시 현상이 있다는 얘기다. 소득 수준만을 고려한 노인 빈곤율 자체도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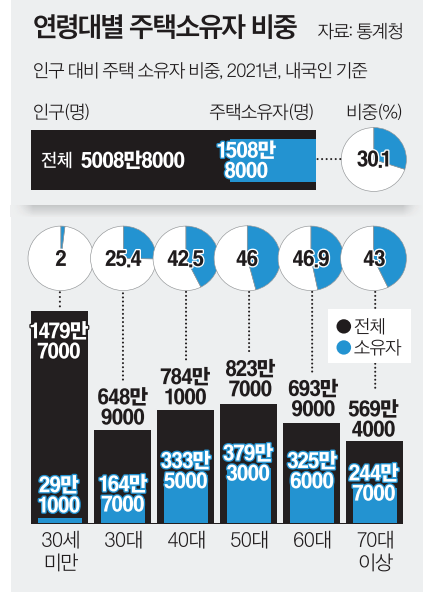
최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7.6%다.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따진 것이다. 노인빈곤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엔 상대적 빈곤율이 46.5%였다.

고령자의 소득 자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비중이 늘어난 데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연금 지급자 또한 증가한 영향이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간 소득은 2016년 평균 2816만원에서 2021년엔 3749만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67만9000명, 고용률은 38.7%로 10년 전인 2013년 같은 달(197만3000명·32.6%)보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은 그대로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08년 10만원으



로 시작한 기초연금(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내년엔 1인당 33만4000



원에 달한다. 노인빈곤율은 10년 새 약 10%포인트 줄었지만, 기초연금 지급자 비율(70%)은 그대로다 보니 소득이 비교적 많은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구조다.

월 소득 87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만 받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2023년엔 202만원으로 확대됐다. 월 소득이 200만원이 넘더라도 '가난한 노인'으로 분류돼 매달 30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론상인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고 할 때 월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액을 산정할 때 월 108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공제되고, 공공일자리로 인한 소득은

전액 공제되는 것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자산까지 고려해 계산하면 노인 빈곤율은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온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통계청장)가 지난 6월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 자산이 전 국민 기준 상위 4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중 소득이 하위 40%인 비중은 45.2%에 달했다. 자산이 비교적 많아도 소득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는 얘기다. 65세 미만에선 상위 40%에 해당하는 자산가이면서 소득이 하위 40%인 비중이 10.2%에 불과하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65세 이상 중 실제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건 21%다. 당시 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은 46%가량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부동산 자산 등을 고려할 때 빈곤선을 넘어선다는 게 연구원의 추산이다. 2021년 기준 60대 인구 중 주택 소유자 비중은 46.9%, 70세 이상은 43%로, 전체 연령대(30.1%)보다 높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가난하다기보다 양극화가 심하다는 게 진짜 문제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처럼 일부 어려운 고령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자는 고령 인구 증가로 내년엔 700만 명에 육박한다.

정진호 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신화와 역사가 만나는 크노소스 궁전

유럽 최초의 건축가 다이달로스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건설했다. 미로의 주인은 황소 머리의 괴물 미노타우로스. 인간 제물을 먹어 치웠다.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는 이 공공의 적을 살해하고 미로 탈출에 성공했다.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의 한 꼭지다. 지중해 한복판 크레타섬에 신화의 무대가 실존하니 바로 크노소스 궁전이다.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행정 관청, 공방, 시장, 공공 생활공간까지 갖췄으니 밀집된

도시라 함이 맞겠다. 기원전 1900년경 건설된 크노소스 궁전은 유럽 최초의 문명인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다.

해양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 건설기법을, 이집트에서 예술과 장식기법을 배워 독자적인 건축공간을 형성했다. 방만 1000여 실에 달하고 최고 7층까지 당대 최고층 건물을 세웠다.

상하수도는 물론 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까지 완벽한 배관시설도 갖추었다. 비어진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이 거대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열했다.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는 거대한 직통 계단이 있는가 하면, 지붕에 구멍을 뚫어 5층 아래까지 자연광을 비추는 빗물통을 곳곳에 설치했다.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춘 내부는 다양한 꽃과 동물, 인물을 그린 프레스코화로 장식했다.

바로크 시대나 가능했을 건축적 성취를 2500년이나 앞서 크노소스가 달성했다. 크레타 출신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미노스의 궁전』에서 바다가 자연 방어벽이기에 궁전에는 성벽이 없었다 했다. 그의 묘사대로 외부는 개방적이지만 내부는 어마하게 복잡적이고 환상적이었다. 미개한 육지의 그리스인들이 크노소스를 미로라고 여길 만했다.

영국 고고학자 에번스는 미노아 문명 연구와 탐사에 일생을 바쳤다. 신화에만 등장했던 크노소스의 실체를 발굴하고 흥분한 나머지, 궁전 군데군데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했다. 성급한 복원을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지만, 폐허의 궁전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에 적절한 실수였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er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PA 101076; WV M-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Diane Mun Lee)
대표 / Principal Broker
워싱턴 한인 부동산 협회 초대 회장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본사 사육/한강식당 옆)

바닥 꺼진 주택 공급... 인허가·착공·준공 '3중 마이너스' 행진

올들어 착·준공 30~60% 급감

주택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공급 속도가 급속도로 떨어졌다. 주택공급 주요 3단계 과정(인허가·착공·준공)에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물량 대비 비율이 인허가 -34.4%, 착공 -67.9%, 준공 -37.1%를 나타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저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감소가 이미 지난해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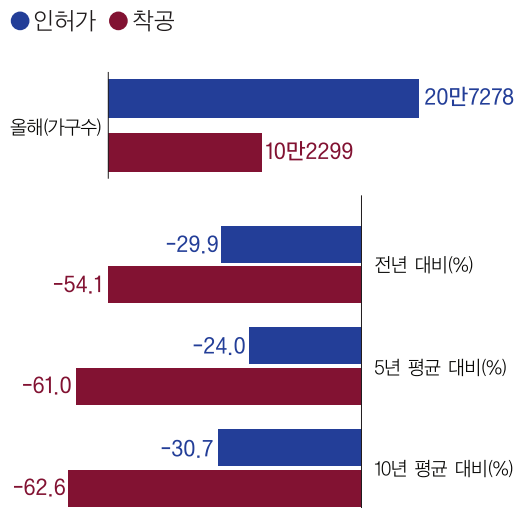
주택건설업체가 집 지을 생각이 확 줄어든 데다 인허가를 받아 놓고도 선뜻 공사에 나서지 않는다.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착공 감소로 시장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는 준공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 우려

그러잖아도 주택수급 지표인 주택보급률(가구수 대비 주택수)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통계인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02.2%, 서울 94.2%다. 지난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각각 104%, 96% 넘게 올랐다가 주택공급 물량이 가구수 증가 등을 쫓아가지 못해 뒷걸음질 쳤다. 학교 성적으로 치면 등수(보급률)가 내려간 마당에 집수(공급)가 더 떨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가 연상된다. 금융위기 충격으로 바로 그해부터 인허가·착공이 급감했고 이듬해인 2009년부터 준공 감소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를 이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2011년부터 인허가가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 시차로 준공 물량은 2014년에서야 예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뚝 떨어진 주택공급 선행 지표(전국)



“금융위기 이후 5~6년간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이 이후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유동성 급증과 맞물려 집값 폭등을 낳았다”고 말했다.

집값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뇌관’이다. 지금의 공급 부족이 지속해 집값 급등의 불씨로 지목된다면 4년 뒤인 2027년 대선판을 뒤 흔들 수 있다. 이를 염려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나서 지난 1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대책을 서두르고, 원희룡 장관은 6일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느냐는 2~3년 뒤 집값에서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적 공급량 확보”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요 감소다. 수요는 집값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집값 급락이 공급에 급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공급량 교란도 작용한다. 복잡한 인허가, 급등한 공사비, 자금난, 부

실공사 등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조러든 수요를 무시한 과도한 분양책은 나중에 과잉공급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전 집값 폭등을 기준으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부터 해야 한다. 새 대책 못지않게 기존 제도 손질도 필요한데 금융위기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제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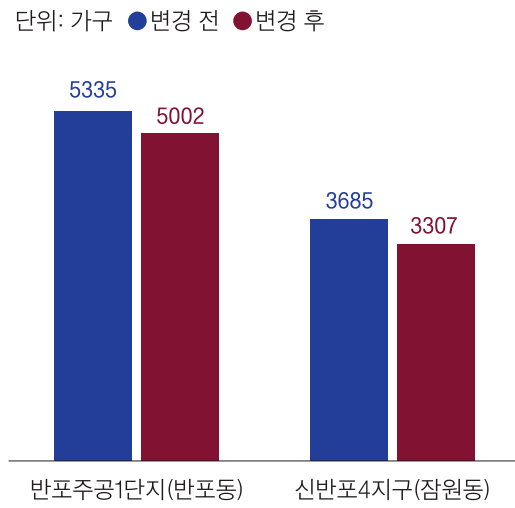
2009년 2월 만들어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는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위한 처방이었다. 주차장 등 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규제(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며 청약통장 필요 없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다. 유형은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전용면적(85㎡ 이하)과 단지 규모(현재 300가구 이하)가 제한됐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자료: 국토부

'1+1' 포기로 줄어든 재건축 건립 가구수



자료: 업계 종합

간단해 빨리 공급량을 늘릴 수 있었다.

반포에서 아파트 711가구 사라져

도시형생활주택은 서울에서 한때 전체 주택 인허가 물량의 40%까지 차지할 만큼 공급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대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10%도 위태로워졌다. 월별 실적을 보면 한 달에 4000건을 넘기도 했는데 인허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6월 2개월 연속 '0'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크기를 늘리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전세 사기’의 영향이 크다. 대부분 소형 주택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의 불똥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튀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추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도입한 게 기존 주택을

둘로 쪼개는 ‘1+1’ 재건축·재개발이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크기 내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한다. 전용 145㎡로 ‘84㎡+59㎡’를 받는 식이다.

집을 줄여서 거주하는 대신 나머지 소형주택을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어 대형 주택 보유자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양도세 다주택자 증과다. 소형주택은 3년간 팔지 못하고 문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강화로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 등록도 할 수 없게 됐다.

세금 급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잇따라 1+1을 포기하면서 재건축 등의 주택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4지구 건립계획이 당초 총 9020가구에서 8309가구로 711가구 감소했다.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가 없어진 셈이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 1번 ‘인테리어’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구를 선택할 때는 유행을 타는 디자인이나 컬러보다는 심플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과 뉴트럴 컬러 소파를 구입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소재는 가죽 또는 패브릭 중 가구를 놓을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해 선택

하는 것이 좋다.

▶ 패브릭

인테리어에서 패브릭을 빼놓을 수 없다. 소파와 커튼, 침구류, 러그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패브릭 아이템은 조용한 럭셔리 인테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겨울철엔 소파나 원두우

시트에 벨벳 소재 쿠션으로 액센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할 수 있다. 또 양모 소재 러그 역시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효자 아이템. 이외에도 여름엔 리넨 커튼과 쿠션 등으로 청량감을 더할 수 있다.

▶ 테이블웨어

세련된 식기 역시 조용한 럭셔리 의 일등공신. 게다가 식기는 매일 사용할 수 있고 손님 초대 시에도 가장 눈길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아이템이다. 테이블웨어에 ‘조용한 럭셔리’를 입히기 위해서는 일반 식기 외 메인 디시를 놓는 접시, 수저, 유엔 실 등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만약 테이블

블웨어를 교체하고 싶다면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서치를 통해 다양한 식기 브랜드를 살펴 본 다음 다이닝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브랜드를 선택한 뒤 그 브랜드 안에서도 어울리는 컬렉션을 찾는 것이 좋다.

이주현 객원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 1
1640sqft
넓은 타운홈, 올수리
\$6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올수리된 집
\$675,000

주택 매매 / SALE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주택 매매 / SALE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주택 매매 / SALE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용자 칼럼

연방정부 섰다운?

다행히도 우려했던 연방정부 섰다운의 위기는 임시적이거나 막판에 극적으로 넘기게 되었다.

9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연방 정부 업무 정지 상태를 뜻하는 섰다운이 가시화 되는 듯 우려가 커지다가 그야말로 9월 마지막날 그 기한마감을 바로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45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극적으로 섰다운 위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이 임시적으로 주어진 45일안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격적인 협상이 이뤄지고 의회의 승인이 나와 안심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확실히 처리될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특히나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 인근 지역은 무엇보다도 연방정

부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래도 연방정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많고 그를 위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경제구조이다보니, 향후 이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 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우선 벌여 둔 45일의 시간안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비록 다시 섰다운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그 여파가 또다시 일시적이고, 제한적 일 것 이라는데 무게가 더해 지지만 그렇다고 쉽게 무시할 수준은 아닌 듯 하다.

연방 정부에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수도권 지역에 끼칠 경제적인 영향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실마 무슨 큰일이야 있겠어? 과거에 그랬듯이 지난번 또 그



배준원
그린웨이펀딩 부사장

지난번처럼 결국엔 다 해결되겠지? 하고 넘어가기엔 지금의 경제상황들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1976년 이후 발생한 지난 20년의 연방 정부 섰다운은 경제에 작든

크든(물론 대부분의 경우 아주 제한적인 영향을 끼친걸로 나타나지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권 가격의 경우 상시적인 것은 아니라 여겨지지만 연방정부 섰다운으로 인해 일부 '일시적 불안정'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섰다운 위기가 마감을 앞두고 임시적으로 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의 불안함이 가속되면서 주식시장과 채권 가격의 동반하락이 이어지다 결국 또다시 이자율이 급등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남은 기간안에 예산안이 잘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연방정부 섰다운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비단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닐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닥칠수 있다. 예를들어 주택대출 과정 속

에서도 여러 단계에서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처리되어야 할 과정과 단계가 여럿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수 있다.

아무쪼록 연방정부의 섰다운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수 없는 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45일의 기간안에 새해 예산안이 전격적으로 잘 통과되어서 지금의 불확실성이 원인이 된 불안정한 경제전반의 기초가 하루 빨리 안정되기를, 또 상승하는 이자율에도 제동이 걸려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금리혜택이 돌아오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한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이야기

주택 상태, 보안, 유틸리티 안전 점검 홈워런티 계약 내용 자세히 숙지해야

최근 바이어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은데도 매물은 부족하고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올라 지난 어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면 이때 해야 할 할 일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주택 구매 후에 주택 소유주가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바이어는 에스스로가 시작되면 바로 주택 상태를 점검하는 홈 인스펙션을 한다.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택에 결함이 없는지 등 상태를 확인하여 결과에 따라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셀러에게 수리비를 요청할 수도 있어 바이어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또 바이어가 주택을 구매하고 나서 수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다. 홈 인스펙션 보고서를 보고 수리 계획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

에스스로가 끝났다면 보안상 바이어는 바로 내부로 통하는 주택의 모든 출입문에 자물쇠를 교체해야 한다. 차고 문의 리모컨도 가능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초안종을 설치한 집이 많은데, 이것도 먼저 사용하던 계정을 해지하고 새 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집주인의 이름으로 모든 유틸리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셀러가 3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유틸리티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배려를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유틸리

티 서비스를 미리 연결해야 한다. 에스스로를 마감하기 전에 전 주인이 언제 유틸리티 서비스를 끊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끊기 전 새로 서비스를 연결해야 입주에 수월하다.

동시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회로 자동 차단기(Circuit Breaker)'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이 차단기는 집안 각 공간으로 연결되는 전류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인데, 차단 스위치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과전류나 합선 발생 시 차단기의 내부 스위치가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그리고 가구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주택 거래 시 화재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 의무화하고 있다. 새집으로 이사한 뒤 이들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바로 점검해야 한다.

한편 새로 집을 사면, 대부분 셀러로부터 '홈 워런티(Home Warranty)'를 받는다. 홈 워런티는 주택 시설이나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 또는 교체비를 보상하는 일종의 주택 관리 보증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 시 셀러가 바이어에게 1년 치 보증 계약을 들어주고 그 뒤부터는 필요하다면, 주택 소유주가 매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나 수리 요청 절차 등 계약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고장 발생 시 적절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에스스로가 끝날 때 에스스로 오피서를 통하여 홈 워런티 계약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받을 수 있고, 홈 워런티 회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미셀 원 BEE부동산 부사장

부동산 투자

부동산 시장 외면당하는 시기가 적기 원하는 매물 있다면 지금도 구매 적절

집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오픈 하우스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바이어부터, 벌써 8개월째 오픈 하우스를 다니고 있다는 바이어도 있다. 그런데도 바이어들이 집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매물 공급 문제다. 부동산 가격은 금리, 인구, 소득, 공급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인구, 소득, 주택공급은 하루아침에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금리는 다른 변수보다 훨씬 더 단기적으로 급변동하면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3년간의 집값 변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사야 하는 바이어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은 있는가? 높은 금리와 해결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대중들이 부동산 시장을 외면할 때가 적기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만 해도 집값 폭락에 대한 공포와 기대감이 컸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2022년 중순까지도 집이 없어서 팔지 못했을 정도로 부동산의 열기는 높아졌고, 부동산 가격은 하늘을 찌르듯이 상승했다. 2022년 중순부터 모기지 이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잠재적 바이어들의 움직임과 실제 부동산 거래가 저조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매물이 마켓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변두리 지역부터는 가격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많은 대중은 집값 추

가 하락과 낮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난다. 특히 한인타운 지역의 오픈 하우스를 다니는 바이어들은 왜 집값이 내려간 것 같지 않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팬데믹 시기에, 이 시기에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은 집값 폭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집값 폭등으로 한 집당 복수 오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다운타운은 가격을 깎아서 집 구매를 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이어들은 다른 지역은 거품 가격이 내렸는데도 왜 한인타운만 가격 변동이 없느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이클을 들어라(Listen to the cycle)'라는 격언이 유행하고 있다. 월가에서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워로드 마크가 한 말이다. 사이클은 상승 이후 주춤하다가, 다시금 상승 물살을 탈 경우 더 큰 반등을 이뤄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내가 살 집' 또는 '지금 이 기회'라는 결단력으로, 몇 년 전 집 구매를 했던 바이어 분들이 내가 살았던 집으로부터 투자의 이익까지 낚길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았다면, 최대한 방법을 동원하여 집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때 다시 재융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자.

캐티 리 드림부동산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추천 주택 리스팅 (주택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p>UNDER CONTRACT</p> <p>Pikesville \$939,000 싱글홈, 방5, 화4, 차고2</p>	<p>UNDER CONTRACT</p> <p>Columbia \$889,000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큰 렌치스타일 리버힐교회 학군</p>	<p>SOLD</p> <p>Ellicott City \$819,000 싱글홈, 방5,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Woodstock \$649,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3000sf</p>	<p>UNDER CONTRACT</p> <p>Hanover \$588,000 타운홈, 방4, 화4, 3024sqft</p>
<p>UNDER CONTRACT</p> <p>Hanover \$570,000 타운홈, 방3, 화2.5</p>	<p>UNDER CONTRACT</p> <p>Laurel \$547,000 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p>	<p>UNDER CONTRACT</p> <p>Gaithersburg. \$525,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SOLD</p> <p>Hanover \$490,000 타운홈, 방3, 화3.5, 차고1</p>	<p>SOLD</p> <p>Perry Hall \$45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p>RENTED</p> <p>Silver Spring 월 \$2,700 타운홈 방3, 화장실2.5, 내부수리 완료</p>	<p>RENTED</p> <p>Columbia 월 \$2,500 타운홈 방3, 화장실2.5</p>	<p>RENTED</p> <p>Odenton 월 \$2,000 콘도 방2, 화1</p>	<p>RENTED</p> <p>Pasadena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End Unit, 전채마루</p>	<p>RENTED</p> <p>Ellicott City 월 \$2,100 콘도 방2, 화장실2, LOFT</p>	<p>RENTED</p> <p>Ellicott City 월 \$2,000 콘도 방2, 화2, 섀룸</p>
--	--	--	--	--	--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한중 축구, 다음선 중국 응원이 91% ... '차이나게이트' 논란

정치권 '스포츠 여론조작' 제기

'차이나게이트' 의혹 재점화인가, 인터넷 장난에 대한 과민 반응인가. 지난 1일 열린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91%) 나타나자 퍼진 논란이다. 여당은 "중국발 여론 조작 증거이자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밤 중국 항저우에서 한국과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4강 진출을 놓고 경기를 벌이던 때, 다음과 네이버에서는 '클릭 응원전(戰)'이 벌어졌다. 양사는 스포츠 페이지에 경기 상황을 문자로 중계하며, 이용자들이 댓글과 클릭으로 응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음의 '클릭 응원'과 네이버의 '터치 응원'은 이용자가 어느 팀에 더 많은 클릭 응원을 보냈는지도 보여줬다.

다음 "로그인, 횡수 제한 없어 벌어진 일" 그런데 다음에서 중국 대표팀이 받은 응원 클릭은 1983만 회(91%)로, 한국 팀이 받은 횡수(208만 회, 9%)를 압도했다. 이런 경향은 이틀날에도 이어져 중국은 2000만 회를 훌쩍 넘어선 반면 한국은 200만 회 초반대에 머물렀다. 이상 현상은 여럿 더 있었다. 지난 달 30일 한국이 북한에 4대1로 패한 여자 축구팀 8강전에서도 한국을 응원한 비율(25%·22만 회)은 북한 응원 숫자(75%·65만 회)보다 적었다. 한국 여자 축구팀이 5대0으로 승리한 지난달 28일 조별리그 홍콩전에서도 한국은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지난 1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중국과의 8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한·중전 당시 클릭 응원전 현황. 다음에선 네이버(왼쪽)에 비해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다음 캡처]

9%(11만 회), 홍콩은 91%(117만 회)의 응원을 받았다. 네이버에선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자 축구팀 8강전은 한국이 94%(565만 회), 중국이 6%(37만 회) 응원을 받았다. 여자 축구팀 8강전 역시 한국(70%·156만 회)이 북한(30%·67만 회)을 앞섰고, 홍콩전도 한국(87%·43만 회)이 홍콩(13%·6만 회)보다 응원을 더 많이 받았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나 횡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의 경우 응원 댓글은 로그인 회원만 작성할 수 있지만,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 필요 없다. 다음 관계자는 "누구나 가볍게 응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보니 로그인 절차를 따로 넣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네이버는 '터치 응원'을 위해선 먼저 네이버 아이디(ID)로 로그인해야 하며, 응원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도 거쳐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1인당 응원 횡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마음만 먹으면 소수라도 응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다음은 로그인 절차가 없다 보니 매크로 활용 같은 조작에 무방비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축구 한·중전에서 다음의 응원 클릭 수는 2100만 회로, 네이버 참여(600만 회)의 3배 이상이었다. 두 사이트 모두 중국 본토에서는 접속이 차단돼 있어 실제 중국인 다수가 참여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장난으로 응원 횡수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인위적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조작 방식은 링크를 공유해 응원을 누르는 이른바 '좌표 찍기'나 매크로 시스템 등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2일 오후 "클릭 응원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미 "한국 사이트에서 중국 편을 드는 의도가 뭐냐"는 논란이 확산했고, 정치권으로도 불이 옮겨붙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다음에 조작 세력이 가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중국 세력의 개입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특정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포털 TF는 수사 당국과 포털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 "마·영서도 비슷한 의혹 불거져"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국 동포(조선족)와 중국인이 한국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여론에선 "이제야 증거가 잡힌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당시 경찰 수사로 넘어간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놔둘 수 없다"(지난해 10월 김기현 의원)며 줄곧 경계해 왔다. 올해 들어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개인 블로그에 "내년이 총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음과 네이버를 저들(중국의) 광란의 놀이터로 만들 수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썼다. 김성수(정치외교학)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해외 여론 조작은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불거진 의혹이고, 한국에서도 여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진보 성향이 강한 다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심서현 기자

이래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예식 대신 셀프다큐 상영

"혼인식을 치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결혼식'(結婚式)이란 말이 남성이 장가간다는 뜻이란 걸 알게 돼서 '혼인식'(婚姻式)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박배일 감독) 다큐멘터리 감독 박배일(42), 초등학교 교사 황남임(31)씨 부부는 지난해 9월 24일 예식장이 아닌 극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걷는 결혼식 대신 혼인 과정의 고민과 경험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 부모·가족·친지 앞에 상영했다. 부부가 공동 설립한 제작사 나하

나필름의 첫 작품이다. 연출·촬영·구성·편집도 모두 두 사람이 함께했다. 영상 세대의 새로운 혼인 풍속도를 그렸다. 지난달 폐막한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다큐 '어푸 어푸'는 부부가 이 영화의 제작을 결심하고부터 혼인식 상영 뒤까지를 담은 작품. 가난한 독립 다큐 감독이 교사란 안정된 직업에 나이 차까지 큰 여자친구를 만나, 여자친구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에 이르기까지를 본인 및 주변인들의 솔직한 인터뷰로 그려냈다.

박 감독은 2018년 정동진독립영화제에서 자원 활동가로 참여한 황 감독을 만나 진심 어린 편지로 구애에 성공했지만 두 사람의 연애는 단맛만 큼이나 쓴맛이 컸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환경에서 성장해, '밀양 아리랑'(2014), '소성리'(2017) 등 여성·노인·장애·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한 독립다큐를 만들어온 박 감독과 부모가 원하는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란 황 감독. 다큐엔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의 가치관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황 감독은 사회 초년생 때 부

담한 일을 당하고 불안정한 연애를 겪으며 자해 등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박 감독의 '어푸 어푸' 제작 후기에 따르면 "'짜꿍'(그는 아내를 이렇게 불렀다)이 영화 만들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짜짜 마요!'였다"고 한다. 촬영 거부에, 우는 모습을 빼달라는 요구까지 겹치자 박 감독도 "협업하는 건 (이 작품이) 끝이다.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작업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했던가.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멀쩡이 튀겨 나간 상대에게 '어푸 어푸' 해엄치듯 다가가는 화해의 과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터준다. 나원정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Jenny: Please, let me do it. Mom, please.
제니: 엄마, 제발 내가 하도록 놔주세요.
Marsha: I'll talk it over with your father tonight.
마샤: 오늘 저녁에 내가 아빠랑 얘기해볼게.
Jenny: He'll say yes. He has to.
제니: 아빠는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Marsha: He doesn't have to. He might think you're too young.
마샤: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아직 너무 어

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Jenny: But it's my first job. He should be happy.
제니: 하지만 내가 처음 일하는 건데요. 아빠가 기뻐해주셔야죠.
Marsha: You know I'm on your side. I think it would be good for you.
마샤: 나도 네 편이라는 것 너도 알잖아. 내 생각엔 너한테 좋을 일일 것 같아.
Jenny: Thanks Mom. I hope Dad thinks the same way.

work on (someone); ~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다

(Marsha and her daughter Jenny are talking in the kitchen...)
(마샤와 그 딸 제니가 부엌에서 얘기한다...)

제니: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Marsha: He'll be home very soon. I'll work on him.
마샤: 금방 집에 오실 거야. 내가 한번 설득해볼게.
Jenny: Don't forget to tell him I'll make five dollars an hour.
제니: 내가 시간당 5달러씩 번다는 것 잊지말고 얘기해주세요.
Marsha: I will. And I'll tell him that you'll make a wonderful babysitter.

마샤: 그래. 게다가 네가 얼마나 좋은 보모가 될 지도 얘기하지.

기억할만한 표현

▶ to be on (someone's) side: ~의 편을 들어주다 ~를 지지하다
"I have been on his side since the argument started."
(저야 논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 사람을 지지해줬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 열쇠

(1)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됨.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 열의 한술밥이 한 그릇 풍곤하다(속담) (4)잇을 수 없는 은혜. ~을 입다. □망□□ (7)사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 또는 중요한 부분. ~역할 (8)먹는 물 등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9)키가 6미터 정도로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큰 동물 (10)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11)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 (12)깎을수록 커지는 것(수수께끼) (14)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 만한 소리나 기색 (15)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천문 기상 관측대. 경주시에 있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대이죠. 국보 제31호 (16)한 살터울로 낳은

아이 (17)대자연의 넓고 큰 땅 (18)서로 맞부딪침 (20)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22)고양이를 부르는 말 (23)시끄럽게 떠들어 대며 술렁거림. 아침부터 왜들 이렇게 ~이나? (25)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26)목소리를 높여 열렬히 주장하는 말. ~을 토하다 (27)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28)사람의 품과 땅은 서로 나눌 수 없음. 우리 품에는 우리 농산물이란 표어에 꼭 등장하는 말

●세로 열쇠

(1)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 (2)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3)격식을 갖춘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만든 한 벌의 그릇 (4)땅을

깎고 평평하게 고르는, 무한계도를 장치한 특수 자동차 (5)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6)비늘이 은빛으로 빛나고 모양이 좋은 큰 물고기. □□□□ (13)개. 돈만 있으면 강아지도 ~라는 데 역시 돈이 좋긴 좋아 (14)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벌레 (17)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은 (19)생물체에서 아버지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유전하는 현상 (21)몹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22)조선시대 서울 남산 근처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주로 밑창이 닳은 ~을 신었다 (24)어린이의 마음 (26)매우 흥분하거나 화가 난 감정. ~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스도쿠

		7	9				3	6
	3			8	2			1
		5			6			
5			1				6	
9			8	6	3			5
	2				9			8
			4			9		
7			2	9			5	
4	5				7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3	8	2	7	1	9	6	5	4
4	5	9	8	6	2	3	7	1
7	1	6	5	3	4	2	9	8
8	4	1	6	7	5	9	2	3
5	2	7	3	9	8	1	4	6
6	9	3	4	2	1	8	7	5
2	7	8	9	4	3	5	6	1
1	6	5	2	8	7	4	3	9
9	3	8	1	4	5	6	7	2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향기**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쓰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 파트타임 (월/화/수/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 (현지 이주, 업무교육 후)

펜스테이트대학 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속도로
(취업기회 풍부)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201.316.6754

(Don) 문자로 먼저 연락 주세요.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합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월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보험사무직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유경험 대우 베네핏 제공 \$4만 이상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 - 리셉션리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3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영어&한국어/MS Office -SEPIRA/Paid Vacation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중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중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투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Full / part time -컴퓨터/영어필수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 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 전망 높은 성장기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이종언어(한국어/영어) 우대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각종 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Paid Holidays & Vacations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덴탈 어시스턴트 구합니다. 파트타임 월/화/수/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네스다 한방병원 바다 /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첸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 우대 Manager(Fulltime) Receptionist(Full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옴션(10 AM-4PM) 한국어/영어 이종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 오피스 프론트일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9AM to 5PM resume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리스트 구함 이종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션리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달리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하실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종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첸들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ime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830-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션리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Tel. 703-281-9660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테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서버구합니다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매이주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첸들리 Cafe Moment에서 금 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중앙일보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자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 plus tip 시간 11시-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리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 로열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운,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리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리리, 헌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PM 301-785-4706

첼리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케리아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분,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안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풀, 파트타임 캐셔 구함 703-463-4004

센터빌 베이커리카페에서 바리스타, 캐쉬어, 키친팀을 구합니다. 703-810-9318

일식당 파트타임 일요일 휴무 Oakton 571-505-4572

델리 그릴 / 콜드 샌드위치 유경험자 구함 Mon-Fri 7am-3pm 시간조절가능 WOW Deli, Gaithersburg, MD 301-990-3254 / 571-232-7717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일식당에서 스시 또는 스시헬퍼 구함 540-735-5873 (메세지 요망)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리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리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룰렌트 한.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리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샘스버버(롤톤)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 분 703-781-8458

<세탁/엘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토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구합니다. Stafford VA 파트타임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치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리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분을 모십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5805/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케비닛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몽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 토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닛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 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디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빌딩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분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애쉬번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바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리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맥스(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하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 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청소 및 잡일 월-토(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무마루, Deck, 매트로 역바로 앞. 즉시 입주!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 1, 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애쉬번 방 4 화장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돈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3, 화장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장, 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글로리아 워싱턴 선교단

단원 모집

《매년 지역 선교 예술제 공연》

주요사역

울동으로 찬송가 & 복음성가 워싱턴 공연을 사모하는 모든 분 환영합니다!

단원 희망자, 영적/물적 후원 원하시는 분 문의 문자 주시면 연락드립니다.

서재진 원장

619-873-7323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 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p>센터빌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4, 화장실4, 차고2 571-882-4473</p> <p>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3, 화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p> <p>Fairfax, 방3+다락방, 화장실2 Oakton HS, \$2500 703-585-4183</p> <p>센터빌 타운홈 \$2,950 방3, 화2.5 쇼피몰&한국마켓 도보 3분 925-900-3918</p> <p>Centreville Town Home 6401 McCoy RD, Centreville, VA 20121 Rent - \$2,400, 방4, 화장실3 Basement, 지하출입문 별도 571-245-1495</p> <p>센터빌 3층, 엔드유닛 타운홈 \$2,700 방3, 화3.5, 차고1개, 텍 많이 업데이트된 밝고 환한 집 703-489-6926</p> <p>〈콘도 렌트〉</p> <p>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2, 화2, Elevator, 5층, 최고급콘도, 나무마루, 리모델링&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p> <p>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 m 방2, 화장실1, Metro 역 걸여감.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p> <p>콘도(Annandale) \$2,100/m 방2, 화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p> <p>애난데일마트 입구 콘도. 방1, 화1. 파킹2. 12월초 입주 \$1500 (703)268-8669(처음은문자)</p> <p>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p> <p>헤이마켓 콘도 차고1, 방3, 화2/1, 2215sq 703-489-6926</p> <p>애난데일 방2, 화1, 렌트 \$1600, 전기요금 별도 703-403-8918</p> <p>Falls Church Condo 렌트 방2, Metro/66도로 모두 갖춰진 깨끗한 집, 렌트 (\$1550+ condo fee) 703-336-3283</p> <p>콘도 (단기렌트) 방2, 화장실 2개, 가구일체 사용가능 수영장, 탁구, 테니스, 골프 18홀 301-466-1888</p> <p>〈방렌트〉</p> <p>셜약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1, 화1, 금연자 (571)243-6295</p> <p>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p> <p>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p> <p>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p> <p>페어팩스 비엔나 전철 근처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p> <p>버크 싱글홈 단지 전체 별도 출입문, 방, 거실, 욕실, 키친, 세탁실, 인터넷, 유모, 금연 남자직장인 및 학생환영 571-216-4775</p> <p>아난데일 방 1 H-Mart 옆, 인터넷, 가구, 유모. 낮에 일하는 남자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350-1986</p> <p>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p> <p>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p> <p>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 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p> <p>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p> <p>방세 놓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p> <p>애난데일 예촌 앞 방세 놓습니다.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p> <p>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p> <p>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p> <p>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p> <p>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p> <p>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p> <p>센터빌 싱글 지하 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p> <p>단독주택 2층 방 / 주차 가능 / 안테나 / 가구완비 / 냉장고 별도 / 여자분 환영 /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p> <p>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p> <p>버크 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Walmart 근처.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p> <p>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 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p> <p>조지메이슨 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 Hmart 도 가까운. 반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 주택 703-389-4615</p> <p>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모.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p> <p>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p> <p>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p> <p>싱글 하우스 방 렌트 스프링필드 495/395 5분거리 703-750-2795</p> <p>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p> <p>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 가능. 703-403-8918 (Lee)</p> <p>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p> <p>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p> <p>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층 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p> <p>센터빌 브라더로드 조용한 집 싱글홈 방 1 렌트 욕실 인터넷 703-909-1609</p> <p>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모, 문자 571-243-7027</p> <p>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원함. 703-405-9005</p> <p>방 1개 렌트, 옥튼/비엔나 지역 인터넷, 1파킹, 세탁기 & 건조기, 부엌 사용 가능, 비엔나 메트로 5분, 교통편리(메트로 버스) 남자/유학생, 직장인 환영. (문자요망) 703-593-7569</p> <p>지하 방 2 넓은 공간에 세탁기 있는 New condition (Lorton VA) 703-501-8044</p> <p>아난데일 서울스대에서 5분거리. 여자분 환영. 차 없으신분 703-622-2033</p> <p>Fairfax Brigade Ln 큰 방 1, 큰 옷장, 별도 큰 욕실, 책상 침대, 침구, 세탁, 유틸리티 포함. 여자분 환영 \$850/m 703-919-2661</p> <p>MD 저먼타운 싱글홈 욕실 딸린 큰 방 1 하고 반 지하 방 1 출입문 별도, 인터넷, 가구 완비 301-538-1438</p> <p>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조용한 아파트, 버스 교통편리, 널찍한 주차장, 가게/식점도 보거리, 깨끗이 리모델링된 아파트, 비흡연자, 즉시 룸메이트로 들어올 분. 571-781-2938</p> <p>방1, 욕실 별도, 주차장, 출입문 별도 잠만 주무실분, 남자환영, 금연자 703-472-0929</p> <p>〈사무실/점포 렌트〉</p> <p>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p> <p>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p> <p>〈싱글/타운/콘도 매매〉</p> <p>콘도 (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여감.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 건물) ▶703-477-3114</p> <p>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편리 ▶703-477-3114</p> <p>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p> <p>Costco & Walmart 가까운. \$229,000 ▶703-477-3114</p> <p>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편리. Lotte Mart 가까운. \$299,000 ▶703-477-3114</p> <p>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 116sf 우리 어메리카은 행 근처 차 3대 파킹할 수 있음. ▶703-813-8949</p> <p>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총 2,252sf 2 Level Bump-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p> <p>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p> <p>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풀 사이즈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p> <p>Centrevill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p> <p>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나온 집. 571-567-5797</p> <p>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미들 학교 703-489-6926</p> <p>〈부동산/상업용 매매〉</p> <p>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 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p> <p>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정비 10여 만 볼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1/2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p> <p>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용자. 부부 운영 곳 571-242-3736</p> <p>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p> <p>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 (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p> <p>애난데일 마트 안 한층식 8만 볼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p> <p>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 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p> <p>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p> <p>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p> <p>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 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p> <p>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 바람. 703-582-8689</p> <p>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 바람. 703-608-0522</p> <p>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p> <p>마켓내 상업용인 한식·중식 식당 하실 분! 703-638-8876</p> <p>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 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림) 240-381-1615</p> <p>기타</p> <p>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헬트 C에서 모여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703-939-5223</p> <p>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p> <p>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p> <p>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 대학과 벨트웨이 중간 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p> <p>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p> <p>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 정식 발행 필기 요점 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p> <p>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 (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p> <p>Falls Church VA 파크만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p> <p>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p> <p>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p> <p>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p> <p>〈중고품/기타 매매〉</p> <p>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p> <p>4인용 고급 식탁, 세탁소용 주키 8700 (USA) 햄 미싱 매매 240-475-4166</p>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8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Roofing Siding Window Gutter Cabinet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99 → **6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크랜트 · 워싱턴 DC

L.A
 구인

라스베가스지역
 (562)332-0765
 Beauty Supply 매매
 가격: \$12만+INV,
 3,300sqft. 월렌트: \$2,700
 연매상: \$40만

일본식당 직원모집
 사세확장으로 함께
 성장하실 분
 *스시 웨프 0명
 *히바찌 웨프 0명
 *웨이터/웨이트리스 0명
 참석제금
 앨라배마 지역
 (251)968-2525 (256)653-1970

뷰티 서플라이 매매
 플로리다 올랜드
 매상 \$1,000,000/년
 렌트 \$5,000
 매매가 \$500,000
 T.407-928-3057

구인
주방장 & 헬퍼
 부부팀현영. 침식제금
 알래스카 (907)855-1228

맞춤 홈페이지
 50년 경력으로 쿤선,
 침대커버, 인테리어 소품
 그외 모든 홈페이지를
 맞춤형 만들어 드립니다.
 (213)505-3898

애크랜트
 구인

매매

기타지역

매매

소액투자
 식당운영하실분
 돈가스/한식/치킨
 좋은상권, 마케팅
 (714)356-3786

저렴한 E2 사업체매매
 AZ피닉스공항에서 30분거리
 현주인2007년부터 운영
 E2승인 및 연장 총7번
 갱신헤드 영주권취득해서 매매
 안젤라 (480)285-9605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주산삼** **chunjongsansam.com**

심마니 장석훈의 천주산삼

213.388.1234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뉴스 통합 모바일 App
 (213)368-2532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품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6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평약 산삼음욕단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book7080.com **신제품**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www.J2V.co.kr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2054 S. Euclid St #H. Anaheim, CA 92802

2023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9일 개강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
은행집 전문!!
 싼 가격으로 집 장만 하세요!!

추천 매물

- \$210,000 (Annandale)**
 콘도, 방1, 화장실1, 최강의 비스타, 나무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 Central A/C, Water Heater & Windows, 탁트인 구조, 넓고 밝은 리빙룸, 2층, Large Balcony, H-Mart 근처.
- \$355,000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탁트인 구조, 콘도, 1,400 s.f., 1,2 층 구조, 리모델링한 주방과 화장실, New HV/AC, 교통 편리
- \$435,000 (Leesburg)**
 타운하우스 스타일 콘도, 방3, 화장실2½, 3Levels, 1,521 s.f., Washer & Dryer Granite Counter Tops, Hardwood Floors, Remodeled Baths
- \$499,900 (Fairfax)**
 타운하우스, 방2, 화장실3½, 밝고 환한 집, 1,278 s.f., 잘 꾸며진 지하실, 나무마루, 교통편리.
- \$700,000 (Centreville)**
 단독주택, 2 Car Garage, 방3, Full Bath 3개, 나무마루, Gourmet Kitchen, 잘꾸며진 지하실, 밝고 환한집.
- \$812,000 (Annandale)**
 새 타운하우스, 고급 빌딩, 2 Car Garage, 방3, 화장실3½, 1,956 s.f. 공사중이나 곧 준공, 가까운 전 입주, Luxury 타운하우스

특보!! 특보!! 특보!!
콘도 (Annandale) \$395,000
 방2, 화장실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Remodeled Bathroom, 새페인트, 나무마루, Central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차 3대 주차공간, 1,116sf 우리아메리카 은행 가깝음.

Special! Special! Special!
콘도 (Centreville) \$318,000
 방2, 화장실2, 1,038 s.f., 잘 관리된, Update 된 집,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주차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콘도 (Fairfax) \$395,000
 방1, 큰 Den1, 화장실1, Metro역 가깝,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Hardwood Floors, New Carpe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출입문 거리 & 건물)

- 렌트 문의 환영합니다!**
- 1. 콘도 (Fairfax) \$2,100**
 방2, 화장실1, Metro역 가깝, 탁트인 구조,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2009년 새콘도
 - 2. 콘도 (Alexandria) \$2,600**
 방2, 화장실2, Elevator 5층, 최고급 콘도, 나무마루, 리모델링 부엌 & 화장실, Amenities 풀룸,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즉입 가능
 - 3. 콘도 (Annandale) \$2,100**
 방2, 화장실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 4. 단독주택 (Manassas) \$1,950**
 방3, 화장실1, updated Kitchen, Bath, SS Appliances, 나무마루, Deck, Storage Shed, No HOA
 - 5. 타운하우스 (Vienna) \$3,400**
 방3, 화장실2, 2 Car Garage, Full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무마루, Deck, 메트로역 바로 앞, 즉시 입주 가능.
 - 6. 단독주택 (Manassas) \$2,800**
 방3, 화장실2, 넓고 환한 리빙룸, 나무마루, 넓은 욕, Full Kitchen, 콘도, 넓은 리빙룸

Springfield
 콘도, 방 2, 화 2, updated Kitchen (Granite Counter Top), Hardwood Floors, New Carpet, New Ceiling, 밝고 환한 집
\$359,900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깝음
\$229,000

Centreville
 콘도, 방2, 화2, Fire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편리, Lotte Mart 가깝음
\$299,000

Leesburg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방3, 화3½, Upgraded Living Room, 2,419 s.f., Hardwood Floors, Appliances Upgraded, Bay Window
\$675,000

Aldie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Brick Front, End Unit, Bay Window, Lotte Mart, Upgraded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 Hardwood Floors, Quality Kitchen, Multiple Closets, Hardwood Floors), Walkout Basement,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685,000

Bristow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2011년 방3, 화 2½, 2,300 s.f., Hardwood 새집, 넓은 욕, Full Kitchen, Hardwood Floors, 밝고 넓은 Balcony, Full Basement, Full Finished 뒷마당
\$550,000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 년산, 방3, 화 2½, 2,252 s.f., 2 Level Bump-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u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 환영합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아이웨이 진행함

주택매매, 상가매매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